



한국교회연합 찬양대

주최 메시아연주회

주관  소망교회
THE SO-MANG CHURCH

만민에게 오신

메시아

제 53 회

메시아 연주회

G. F. HÄNDEL
MESSIAH

The 53rd Performance of Handel's Oratorio Messiah



지휘
임한귀



소프라노
강예정



알토
정수연



테너
신상근



바리톤
염경묵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3. 12.05 (화) 7:30 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CONTENTS

December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2
깊어지는 영성	나의 목자 김경진	4
목상에 붙임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마르틴 루터	6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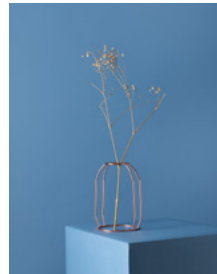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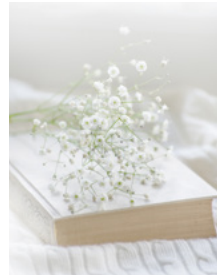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12월 본문	역대하·욥기·예레미야	16
	1주(12/4) 2주(12/11) 3주(12/18) 4주(12/25)	

FAITH

떨끝에서 온 편지	약한 그대에 김유아	30
소망사랑방	추억 하나 허니브리지 13기	62
전도서산책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이순기	94
향유옥합	봉헌 조정태	134
공간공감	오정동 선교사촌_서의필하우스 홍성찬	172
이달의 기도	길을 따르며	176

COMMUNICATION

문화읽기	<리플리>를 통해 본 사기와 속임수의 결과 황영미	178
소망마당	별 교회학교	182
그림묵상	빛과 소금 이호연	188
예배자의 길	12월 우리의 고백 이영주·안진현·최창실	190
가정예배 오답노트	다양한 가정별 가정예배, 모델은 다양하게 사건은 선명하게! 신형섭	194
돌봄의 창	면역 기능과 건강한 삶 배동한	198
올해의 책	출판사 비아가 추천하는 올해의 책	202
소망뉴스		206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조금만 더 성실했다면 하는 아쉬움으로,
조금만 더 바르게 살았다면 하는 후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 것에 한눈파느라
맡겨 주신 소명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글 김경진



산에서 다람쥐 많이 보셨지요? 다람쥐가 참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 열매를 참 좋아한다고 하네요. 열매를 물고서 수십 미터에서 몇 킬로까지 이동한 후에 식량을 비축하고자 땅속에 묻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서 도토리를 묻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토리의 95% 이상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땅에 묻힌 도토리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번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람쥐의 건망증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 요즈음에는 기억력이 그리 큰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까? 1800년대 후반의 한국 교회사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다닐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은 성경 구절이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것보다,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의미하는 바를 발견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이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번성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여라도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게 될까 염려하신다고 말씀합니다(신 8:14). 하나님을 잊게 되는 원인이 단순한 망각이나 능력의 부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잊는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역사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배가 고파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솟아오르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만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배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늘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드시며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 선생님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시편 124편을 인용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시 124:8)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해 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편이시요, 그가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평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글 마르틴 루터

주님께 기대어 삶

주님, 각자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는 군주, 도시, 백성, 식량,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WA TR(루터의 탁상담화) 3, 655. Nr. 3844. (1538년 4월 19일)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나이다.

당신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저들의 마음에 확신하나이다. (시 10:17)

주님,

당신은 우리가 연약하여 수많은 위험 앞에

흔들린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궁지에 빠뜨리는 죄를 이겨 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 WA(루터의 바이마르 전집) 30/III, 36.

- 마르틴 루터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최주훈 엮고 옮김, 비아, 2021) 136, 213쪽.

WORD

역대하 · 욥기 ·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
금요일

역대하 10:1-11
273 고백의 영적 영성지도

말씀 속으로

1 요로보암이 세겔스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일으켜서 왕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Rehoboam went to Sechem, for all the Israelites had gone there to make him king.

2 느벳의 아들 요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넷을 꾀하여 예갈조로 도망하여 있었다니 이 일을 듣고 요로보암이 예갈조에게서 부끄러워하였다.
When Rehoboam son of Nebat heard this (he was in Egypt, where he had fled from King Solomon), he returned from Egypt.

3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들이고 요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세겔스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So they sent for Rehoboam, and he and all Israel went to Rehoboam and said to him:

4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고와와 예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받들고서 나아
"Your father put a heavy yoke on us, but now lighten the hands, labor and the heavy yoke he put on us, and we will serve you."

16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목상집에 있는 **<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러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해 | 관해전에 의미를 생각하여 답을 취학한 뒤에 본사다

1. 여류보장이 애국에서 올라옵니다(1~5)

[illegible]

2. 료후보안이 원국들의 가급권을 버립니다(5~10)

[illegible]

저음 | 알뜰 아예 아플면 파시용 샐러드34173

1. 앞위 계층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군에서 물자는 여군보급의 발걸음은 만국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 부국강화를 위한 물자를 사들여서서서 만국을 일으키고 있다. (최고의 계층을 공격해 보자.)

2. 북 이스라엘의 연합보다는 갇혀짐을 선택한 금호보암의 의지에서 무엇이 느껴질까?

목상업기 | 마음에 외딴은 구절을 필사하여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자.

기도 | 주신 말씀에 반응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사면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6 | '복 있는 사람은 여인의 피를 흘린 자 아니니, 회한에 잠겨 세지 아니하며, 요한만 자지 아니하며' 1. '오호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고 많은 영혼을 목숨한 사람들이! '그는' 가에 있어 내구기 할까? 열매를 맺으며 그 열이 사들이 아니니! '그'는 열매가 될 것 같다. '나'는 내적인 것에서 시작! 열매 바람에 흔들리는 나!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에 따라 움직여 주지 못하며, '그'는 여인의 피에 잠겨 있다' 6.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에 따라 움직여 주지 못하며, '그'는 여인의 피에 잠겨 있다' 6.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에 따라 움직여 주지 못하며, '그'는 여인의 피에 잠겨 있다' 6.

● 균형 있는 신장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 □ 기 □ 도 □ 유 □ 거가하 시승과 □ 승 □ 개항로 차차 □

역대하(10~20장)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9:28)

솔로몬의 죽음이 알려지기 바로 직전,

역대기 저자는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빼기 박는다.

그리고 10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 사건을 다룬다.

이때에 애굽에서 돌아오는 여로보암의 발걸음이 어쩐지 예사롭지가 않다(10:2).

솔로몬 생전에 반역을 시도한 그가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북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여 르호보암을 찾은 여로보암의 행보는,

머지않아 남과 북으로 쪼개질 이스라엘의 운명을 암시하여 준다.

물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한 노역의 무게를 부과하겠다는 르호보암의 무모한 선고가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놓게 되지만,

성경은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증언한다(10:15).

하나님은 왜 강성해지는 솔로몬의 나라를 쪼개셔야만 하셨을까.

이후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왕과 백성의 역사는

부귀영화에 뒤따라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추어낸다.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잔해지고 ... 순종하고 배신하고, 의지하고 떠나고 ...

그러나 변화하는 실체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존재한다.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워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였다.

비단 하나님만이 화가는 아니시다.

하나님 편에 붓은 들려 있지만, 곳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왕과 백성을 찾아가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틀 열쇠를 쥐어 준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11:4 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
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15:2)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6:7)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그리고 미가야. 아합은 미가야의 경고를 거부하며 변장까지 시도해 보
지만 무심코 당겨진 활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그날에 소리지르며 돌이킨 여호사밧
은 극적으로 살아나는 구원을 경험한다(18:28~34).

여기서 잠시,
 쪼개진 남과 북 사이를 가로지르는 듯한 여호사밧의 간절한 외침이 하나님의 맹세를 상기시킨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7:14)
 민족은 분열될 수 있어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었다.
 여호와께 돌이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의 영광을 뵈옵는 날이 멈추지 아니하였다.
 이 사랑의 역사가 쪼개진 남 유다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렇다면 귀환 공동체와 오늘 나의 손에 쥐어진 열쇠는 무엇인가.
 “그러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15:7)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2일 주간		
1(금)	역대하 10:1~11	여로보암의 호소와 르호보암의 대응
2(토)	욥기 41:1~34	리워야단에 관한 묘사
4~9일 주간		
4(월)	욥기 42:1~9	욥의 회개
5(화)	역대하 10:12~19	북쪽 지파의 배반
6(수)	11:1~12	르호보암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7(목)	11:13~23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8(금)	12:1~12	애굽의 침략
9(토)	욥기 42:10~17	욥과 친구들의 회복
11~16일 주간		
11(월)	예레미야 1:1~10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12(화)	역대하 12:13~16	르호보암의 죽음
13(수)	13:1~12	아비아의 연설
14(목)	13:13~22	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전쟁
15(금)	14:1~15	아사의 왕위 계승
16(토)	예레미야 1:11~19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
18~23일 주간		
18(월)	예레미야 2:1~13	유다가 행한 배반
19(화)	역대하 15:1~15	아사의 개혁
20(수)	15:16~16:6	아람 왕을 향한 아사의 요청
21(목)	16:7~14	아사를 향한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
22(금)	17:1~19	여호사밧의 왕위 계승과 그의 나라
23(토)	예레미야 2:14~28	유다가 행한 우상 숭배
25~30일 주간		
25(월)	성탄절	
26(화)	역대하 18:1~27	아합 왕을 향한 선지자 미가야의 책망
27(수)	18:28~34	아합 왕의 죽음과 구원받은 여호사밧
28(목)	19:1~11	여호사밧에 대한 선견자 예후의 규탄
29(금)	20:1~13	여호사밧과 아람과의 전쟁
30(토)	예레미야 2:29~37	유다가 행한 거짓된 경건
31일 주간		

12

December 2023

SUN

MON

TUE

WED

3

대림절 첫째 주일

4

5

6

10

권사 임직식

11

12

13

17

장로·권사 은퇴식

18

19

20

교회학교 성탄 발표

24/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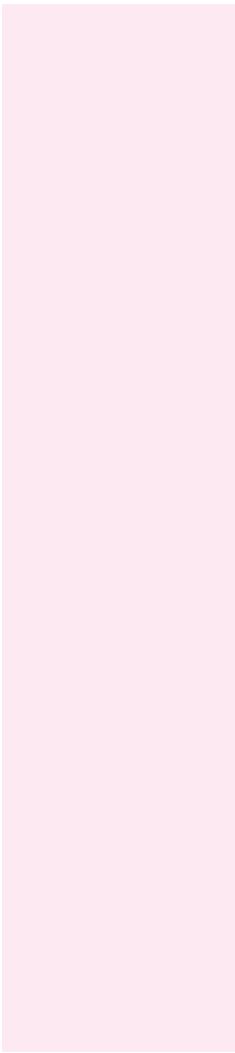
25 성탄절

26

27

1	S	M	T	W	T	F	S
Jan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HU	FRI	SAT
	1 여전도회 연합예배	2
7	8	9
14	15	16
21	22	23
28	29	30



역대하 10:1~11

오늘의 찬송 272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말씀 속으로

- 1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Rehoboam went to Shechem, for all the Israelites had gone there to make him king.

-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낫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When Jeroboam son of Nebat heard this (he was in Egypt, where he had fled from King Solomon), he returned from Egypt.

- 3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So they sent for Jeroboam, and he and all Israel went to Rehoboam and said to him:

- 4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Your father put a heavy yoke on us, but now lighten the harsh labor and the heavy yoke he put on us, and we will serve you.”

5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삼 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Rehoboam answered, "Come back to me in three days." So the people went away.

6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
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Then King Rehoboam consulted the elders who had served his father Solomon during his lifetime. "How would you advise me to answer these people?" he asked.

7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
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They replied, "If you will be kind to these people and please them and give them a favorable answer, they will always be your servants."

8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
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But Rehoboam rejected the advice the elders gave him and consulted the young men who had grown up with him and were serving him.

10:4

열왕기상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북 지파는 1년 중 10개월에 달하는 시간 동안 솔로몬 시대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통치 기반으로 삼고 남 유다를 다스린 까닭에 북 지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 9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He asked them, "What is your advice? How should we answer these people who say to me, 'Lighten the yoke your father put on us?'"

- 10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The young men who had grown up with him replied, "Tell the people who have said to you, 'Your father put a heavy yoke on us, but make our yoke lighter' - tell them, 'My little finger is thicker than my father's waist,

- 11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My father laid on you a heavy yoke; I will make it even heavier. My father scourged you with whips; I will scourge you with scorpion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옵니다(1~5).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집니다(1절). 이 소식이 삼시간에 퍼졌는지 애굽에 피신해 간 여로보암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2~3절). 그는 솔로몬이 살아 있을 당시에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사실상 솔로몬과 르호보암과는 같은 노선을 취하지 않는 인물이 왕위 계승이 일어나는 시점을 배경 삼아 역사 가운데 등장한 셈입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여로보암을 따르는 일견의 무리가 이미 함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며 무리를 대표하여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간청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3절). 건축 활동을 왕성히 이어 가며 북 이스라엘 지파에게 고된 노역의 짐을 부과했던 솔로몬의 정책을 끊어내고, 르호보암은 그 멍에를 가볍게 해 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4절).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삼 일’ 후에 다시 찾으라고 명하며 여로보암과 무리를 돌려보냅니다(5절).

2.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립니다(6~11).

르호보암이 먼저 행한 것은 원로들과 상의하는 일이었습니다(6절). 솔로몬을 모신 장본인인 만큼 적절한 조언을 내려 줄 수 있겠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무참히 ‘버리고’,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릅니다(8절). 그들 서로 간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니 한마디로 북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하여 찾아온 여로보암의 요청을 잘라내고, 르호보암은 마땅히 그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10~11절). 아버지가 휘두른 가축 채찍보다도 날카로운 전갈 채찍을 들고 통치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백성의 마음을 스스로 저버린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백성의 원망을 산 솔로몬 후대 정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겔’ 곧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상기시키며 가나안 진입을 명한 이곳에서 르호보암은 과연 무엇을 붙들고, 폐기해야 했을지 묵상하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애굽에서 올라온 여로보암의 발걸음은 반역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시대를 넘어서면서 반역을 일으킨 하나님의 의도를 고민해 봅시다.
2. 북 이스라엘과의 연합보다는 끊어짐을 선택한 르호보암의 의지는 스스로 나라를 굳세게 하려 한 결심을 보여 주는 듯합니다. 그의 결단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6 ¹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²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³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⁵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⁶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

욥기 41:1~34

토요일

오늘의 찬송 96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 속으로

- 1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뺄 수 있겠느냐

“Can you pull in the leviathan with a fishhook or tie down his tongue with a rope?”

- 2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Can you put a cord through his nose or pierce his jaw with a hook?

- 3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Will he keep begging you for mercy? Will he speak to you with gentle words?

- 4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Will he make an agreement with you for you to take him as your slave for life?

-
- 5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매어 두겠느냐

Can you make a pet of him like a bird or put him on a leash for your girls?

- 6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Will traders barter for him? Will they divide him up among the merchants?

- 7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Can you fill his hide with harpoons or his head with fishing spears?

- 8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If you lay a hand on him, you will remember the struggle and never do it again!

- 9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Any hope of subduing him is false; the mere sight of him is overpowering.

- 10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No one is fierce enough to rouse him, Who then is able to stand against me?

- 11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Who has a claim against me that I must pay? Everything under heaven belongs to me.

- 12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능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fail to speak of his limbs, his strength and his graceful form.

- 13 누가 그것의 겹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Who can strip off his outer coat? Who would approach him with a bridle?

- 14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Who dares open the doors of his mouth, ringed about with his fearsome teeth?

- 15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단혀 있구나

His back has rows of shields tightly sealed together;

- 16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 하는구나

each is so close to the next that no air can pass between,

17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They are joined fast to one another; they cling together and cannot be parted.

18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
풀 빛 같으며

His snorting throws out flashes of light; his eyes are like the rays of dawn.

19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Firebrands stream from his mouth; sparks of fire shoot out.

20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솔이 끓는 것과 같구나

Smoke pours from his nostrils as from a boiling pot over a fire of reeds.

21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His breath sets coals ablaze, and flames dart from his mouth.

22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Strength resides in his neck; dismay goes before him.

- 23 그것의 살겹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The folds of his flesh are tightly joined; they are firm and immovable.

- 24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쪽같이 튼튼하구나

His chest is hard as rock, hard as a lower millstone.

- 25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When he rises up, the mighty are terrified; they retreat before his thrashing.

- 26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The sword that reaches him has no effect, nor does the spear or the dart or the javelin.

- 27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Iron he treats like straw and bronze like rotten wood.

- 28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Arrows do not make him flee; slingstones are like chaff to him.

- 29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
를 우습게 여기며

A club seems to him but a piece of straw; he laughs at the rattling of the lance.

-
- 30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
구나

His undersides are jagged potsherds, leaving a trail in the mud
like a threshing sledge.

- 31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
루는도다

He makes the depths churn like a boiling caldron and stirs up
the sea like a pot of ointment.

- 32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
발로 만드는구나

Behind him he leaves a glistening wake; one would think the
deep had white hair.

- 33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
으로 지음 받았구나

Nothing on earth is his equal - a creature without fear.

- 34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
림하는 왕이니라

He looks down on all that are haughty; he is king over all that
are prou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1~11)

40장에는 베혜못이 등장하며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전해졌다면, 41장에는 ‘리워야단’이 소환됩니다(1절). 고대 근동에서는 최강 짐승으로 알려진 리워야단은 혼돈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이에 본 장은 리워야단이 가진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묘사하며, 누구도 그에게 능히 창을 찌르거나 작살을 쏘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7~9절). 그러나 그런 리워야단도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점차 자신을 계시하시며 다가오시는 동안 욥의 마음 한편에 자리한 불편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분도 듭니다. 속히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고 친구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욥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는 듯한 음성에 섭섭함이 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성정은 옹고 그를 들고 나오는 욥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저울질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반문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11절)

2.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12~34).

리워야단이 가진 힘이 보다 세밀하고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그에 관한 묘사는 궁극적으로 리워야단을 지으시고, 그를 수하에 삼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도록 합니다. 한편으론 리워야단을 둘러싼 구절 가운데 특별히 33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혼돈을 야기하며 소동을 일으키는 세력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놀랍게도 우리 안에 심정적으로나 현상적으로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욥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일으키는 소용돌이 안에 허우적거리는 듯한 욥이 연상되지만, 이내 혼돈을 잠재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희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리워야단을 제압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제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희망이 떠오르는 시간 안에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죽고, 피조물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함께해야 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사람은 혼돈의 세력인 리워야단을 제압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제압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동안에 욥은 겸비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23년도를 마무리하는 달,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죽고 사는 시간을 함께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3~9 ³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⁵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⁶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⁷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⁸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⁹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약한 그대에

글 김유아 (집사)

하나님께 ‘불어권’, ‘아프리카’,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사명으로 받고, 자칭 아프리카니스트로 아프리카 지역 연구에만 10년 넘게 매달렸다. 그러나 손에 쥔 열매 없이 늘 나그네처럼 한지를 걷는 느낌이었다. ‘그래, 이왕 공부한 거 사역이라도 쓰자!’ 콩고민주공화국^{DRC}은 개인적으로는 방문하기 불가능한 국가라고 알고 있었기에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기회만으로도 비전 트립을 쉽게 결단할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쌓여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한 지 오래되었다. 지난 직장을 퇴사하면서는 ‘이제 아프리카 안해요’라고 선언한 참이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행하는 순간순간, 사역의 한 가운데서도 성경책을 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정이었다.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가던 중, 기상 상황으로 인해 지부티로 회항하게 되었다. 환승 시간이 2시간 반밖에 없었던 일정으로, 아디스아바바로의 연결편은 출발할 시각이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10년 넘게 에티 항공을 탔지만 승객 10여 명 정도가 타지 않았다고 기다리는 항공사가 아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서 타도 짐이 같이 안 올 수 있었다. 다음 연결편이 그날에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연결 항공편을 놓치고 제3국을 돌아 하루가 꼬박 더 넘게 걸려 들어간 적도 있고, 뛰어 달려가 잡아탄 항공기에 짐이 실리지 않아 택배로 받은 적도 경험한 나였기에 긴장이 바짝 되었다. 착륙하는 비행기 앞좌석 의자를 붙잡고 함께하는 팀원들과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눅 7:27)라는 말씀과 함께 “네가 약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거란다.”라는 말씀이 들려왔다. 작은 일도 예



민하게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 하나님 옷자락을 꼬옥 쥐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끔찍하게 싫고 못난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부터 사역을 마치기까지 나를 얼마나 어여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지 귀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 주시고, 손으로 만지게 해 주셨다. 만난 아이들, 도와주신 선생님, 현지 목사님, 선교사님, 부족한 나를 사랑해 준 팀원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 이제 더는 못 먹겠다고 할 만큼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차는 온전한 채워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다.

사역을 통해 깨달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신뢰하신다는 가장 친밀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눈물로 걸어온 모든 노력과 충성을 하나님이 보셨다. 내 약함이 곧 강함이다!

3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2/3~9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시 37:5)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욥기 42:1~9

월요일

오늘의 찬송 569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말씀 속으로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Then Job replied to the LORD:

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I know that you can do all things; no plan of yours can be thwarted.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You asked, 'Who is this that obscures my counsel without knowledge?' Surely I spoke of things I did not understand, things too wonderful for me to know.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You said, 'Listen now, and I will speak;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My ears had heard of you but now my eyes have seen you.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Therefore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After the LORD had said these things to Job, he said to Eliphaz the Temanite, “I am angry with you and your two friends, because you have not spoken of me what is right, as my servant Job has.

8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So now take seven bulls and seven rams and go to my servant Job and sacrifice a burnt offering for yourselves. My servant Job will pray for you, and I will accept his prayer and not deal with you according to your folly. You have not spoken of me what is right, as my servant Job has.”

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So Eliphaz the Temanite, Bildad the Shuhite and Zophar the Naamathite did what the LORD told them; and the LORD accepted Job's pray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욥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1~6).

32장부터 본격적으로 욥의 침묵이 이어지는 중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말씀을 전하신 사건은 몇 가지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는 그가 침묵하기까지 쏟아온 숏한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신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주체가 욥과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장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혼란을 잠재우시고 그들을 구속하시는 은혜를 묵상하게 합니다. 사실 욥의 침묵이 심중에 든 모든 생각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욥이 누구인지를 재정비하시며 마음에 남은 불순물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그 손길에 의미를 깨달은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나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4절) 이제는 그가 말하는 중에도 묻고, 물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겸손히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가리켜 욥이 스스로 거두어들였다,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였다고 증언합니다(6절).

2. 욥의 회복이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립니다(7~9).

욥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비단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아니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에게 비난을 일삼으며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던 친구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7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숨겨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8절). 그리고는 그들을 대표하여 드린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친구들의 우매한 행위를 갚지 않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이어서 하십니다. 의인 욥이 고난을 통하여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자, 그를 통하여 주변 사람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9절). 이 대목에서 가족과 그의 땅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보자 욥, 의인 욥의 모습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1:1-5).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보시다.

1.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도 말씀을 듣고, 눈으로 주의 영광을 뵈옵는 은혜를 사모하는 빛이 살아 있습니까?
2. 회복된 욥을 찾아가면서 기쁨을 얻은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9:1~7 ¹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살살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²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³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⁴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⁵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⁶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⁷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2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 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Three days later Jeroboam and all the people returned to Rehoboam, as the king had said, "Come back to me in three days."

- 13 왕이 포박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The king answered them harshly. Rejecting the advice of the elders,

- 14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he followed the advice of the young men and said, "My father made your yoke heavy; I will make it even heavier. My father scourged you with whips; I will scourge you with scorpions."

- 15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So the king did not listen to the people, for this turn of events was from God, to fulfill the word the LORD had spoken to Jeroboam son of Nebat through Ahijah the Shilonite.

-
- 16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When all Israel saw that the king refused to listen to them, they answered the king: "What share do we have in David, what part in Jesse's son? To your tents, O Israel! Look after your own house, O David!" So all the Israelites went home.

- 17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But as for the Israelites who were living in the towns of Judah, Rehoboam still ruled over them.

- 18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King Rehoboam sent out Adoniram, who was in charge of forced labor, but the Israelites stoned him to death. King Rehoboam, however, managed to get into his chariot and escape to Jerusalem.

- 19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So Israel has been in rebellion against the house of David to this da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12~15)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차마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내용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땅 ‘세겔’에서 르호보암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분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이 120년 가까이 통일 왕국을 이어오며 특히나 솔로몬 시대에는 전성기를 누렸다면, 르호보암 시대에는 나라가 쪼개지고 북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15절). 다시 말해 마음 한편에 반역을 품고 애굽에서 올라온 여로보암의 행보나, 후대에 접어들면서 무리하게 펼친 솔로몬의 경제 정책이나, 원로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의 말에 동조하여 내린 르호보암의 결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어난 갈등 자체를 논하기보다 말씀으로 이르고, 말씀으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하나님은 때로 무섭게 찢으시고 조각내십니다(16~19).

아버지 솔로몬보다 무거운 노역을 지우겠다는 르호보암의 선고는 손에 든 채찍은 없었으나 채찍질을 휘두른 상황과 다름없습니다. 그러자 북 이스라엘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나?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16절)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는지 르호보암은 북 이스라엘 지파에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며 고된 노동을 부과하고자 합니다(18절). 분노도 모자라 살의를 표출한 북 이스라엘과, 시대를 읽지 못하고 아버지 때보다 더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읽히는 이때에 문득 다음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17절)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르호보암의 선택은 옳바르지 못했지만 모호한 현장 속에서 다윗 왕조를 이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실로 사람 아히야는 분열의 시기를 내다보며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10:15).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시는 섭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많이 일어나는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2.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13~115 ¹¹³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¹¹⁴ 주님은 나의 은신 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¹¹⁵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팔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When Rehoboam arrived in Jerusalem, he mustered the house of Judah and Benjamin - a hundred and eighty thousand fighting men - to make war against Israel and to regain the kingdom for Rehoboam.

- 2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But this word of the LORD came to Shemaiah the man of God:

- 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Say to Rehoboam son of Solomon king of Judah and to all the Israelites in Judah and Benjamin,

-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Do not go up to fight against your brothers. Go home, every one of you, for this is my doing." So they obeyed the words of the LORD and turned back from marching against Jeroboam.

5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Rehoboam lived in Jerusalem and built up towns for defense in Judah:

6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Bethlehem, Etam, Tekoa,

7 벧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Beth Zur, Soco, Adullam,

8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Gath, Mareshah, Ziph,

9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Adoraim, Lachish, Azekah,

10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Zorah, Aijalon and Hebron. These were fortified cities in Judah and Benjamin.

11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He strengthened their defenses and put commanders in them, with supplies of food, olive oil and wine.

12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He put shields and spears in all the cities, and made them very strong. So Judah and Benjamin were hi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르호보암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1~4).

르호보암의 선택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열왕기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분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장본인은 솔로몬이었습니다(왕상 11:30~32). 완공된 성전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며 기도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 그의 곁에는 아리따운 이방 여인과 가증한 우상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많은 아내와 이방 신이 함께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손에 넘어간 열 지파를 다시 얻고 세력을 키우고자 용사 십팔만을 앞세우며 전쟁에 출전하고자 합니다(1절).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납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4절)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선지자의 말에 르호보암이 반응합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되돌아왔더라’.

2.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5~12).

온갖 것들로 땅이 부요해지자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웠을 듯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르호보암 곁에서 함께한 젊은 신하들의 말로부터 짐작하게 됩니다(10:8~11). 그러니 어찌면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남과 북을 쪼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웠던 땅을 새롭게 개척시키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예루살렘이 선택되고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며, 말씀이 사건으로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특히나 5~10절에 언급된 성읍이 유다 땅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와 르호보암의 관계가 반복해서 기록되는 것도 같습니다(12절; 10:17).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다윗의 집을 배반한 북 이스라엘 사건이 기록된 후(10:19),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돌이킨 르호보암이 묘사되는 흐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2. 4절은 정치적으로는 르호보암의 세력이 약화되는 듯 보이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새롭게 일어나는 시기처럼 읽힙니다. 르호보암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돌아온 행보와 함께 건고한 성읍이 소개되는 흐름을 살피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1:1~2 ¹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²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3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
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The priests and Levites from all their districts throughout Israel
sided with him.

- 14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
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The Levites even abandoned their pasturelands and property,
and came to Judah and Jerusalem because Jeroboam and his
sons had rejected them as priests of the LORD.

- 15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솟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And he appointed his own priests for the high places and for
the goat and calf idols he had made.

- 16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
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
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Those from every tribe of Israel who set their hearts on seeking
the LORD, the God of Israel, followed the Levites to Jerusalem
to offer sacrifices to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
- 17 그러므로 삼 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삼 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They strengthened the kingdom of Judah and supported Rehoboam son of Solomon three years, walking in the ways of David and Solomon during this time.

- 18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Rehoboam married Mahalath, who was the daughter of David's son Jerimoth and of Abihail, the daughter of Jesse's son Eliab.

- 19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라와 사함을 낳았으며

She bore him sons: Jeush, Shemariah and Zaham.

- 20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이카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앓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Then he married Maacah daughter of Absalom, who bore him Abijah, Attai, Ziza and Shelomith.

- 21 르호보암은 아내 열여덟 명과 첩 예순 명을 거느려 아들 스물 여덟 명과 딸 예순 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이카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Rehoboam loved Maacah daughter of Absalom more than any of his other wives and concubines. In all, he had eighteen wives and sixty concubines, twenty-eight sons and sixty daughters.

22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Rehoboam appointed Abijah son of Maacah to be the chief prince among his brothers, in order to make him king.

23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He acted wisely, dispersing some of his sons throughout the districts of Judah and Benjamin, and to all the fortified cities. He gave them abundant provisions and took many wives for th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북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내려옵니다(13~17).

여로보암의 수하에 넘어간 북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세력을 회복하고자 한 르호보암의 시도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중단됩니다. 그날에 르호보암이 보인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말씀을 듣고,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고 밝힙니다(11:4). 그러자 흥미롭게도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 곁으로 돌아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소개됩니다(13절). 14절에 따르면 이들은 북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남 유다로 내려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남 유다와 정치적으로 분리되는 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도 분리되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15절). 그러므로 남 유다에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16절). 왕이 순종하니 백성도 덩달아 순종하여 돌아오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2.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집니다(18~23).

르호보암이 말씀에 순종하자 피 흘림 없이 백성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 곁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가리켜 역대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삼 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삼 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17절)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에게 해임당할 정도로 이들의 믿음은 굳건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왕을 섬기니 땅이 강성해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에 본 단락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누린 강성함을 많은 아내와 첩을 둔 상황에서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18~21절). 그중에서도 특별히 사랑받은 아내가 있었는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아무쪼록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누리는 르호보암의 나라를 보며(23절), 삼 일에 걸쳐 내린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 삼 년의 예배로 회복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묵상하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왕이 말씀에 순종하자 예루살렘에 예배가 회복되고 땅이 부유해집니다. 순종이 참된 제사임을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2.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연합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강성해졌다는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북한 땅을 중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35~40 ³⁵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³⁶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³⁷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³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 주십시오. ³⁹ 주님의 규례는 선택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⁴⁰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하 12:1~12

오늘의 찬송 456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말씀 속으로

- 1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니라

After Rehoboam's position as king was established and he had become strong, he and all Israel with him abandoned the law of the LORD.

- 2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Because they had been unfaithful to the LORD, Shishak king of Egypt attacked Jerusalem in the fifth year of King Rehoboam.

- 3 그에게 병거가 천이백 대요 마병이 육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With twelve hundred chariots and sixty thousand horsemen and the innumerable troops of Libyans, Sukkites and Cushites that came with him from Egypt,

- 4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he captured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and came as far as Jerusalem,

-
- 5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Then the prophet Shemaiah came to Rehoboam and to the leaders of Judah who had assembled in Jerusalem for fear of Shishak, and he said to them,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have abandoned me; therefore, I now abandon you to Shishak.'"

- 6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The leaders of Israel and the king humbled themselves and said, "The LORD is just."

- 7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와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When the LORD saw that they humbled themselves, this word of the LORD came to Shemaiah: "Since they have humbled themselves, I will not destroy them but will soon give them deliverance. My wrath will not be poured out on Jerusalem through Shishak."

- 8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They will, however, become subject to him, so that they may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serving me and serving the kings of other lands."

12:2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떠날 당시, 애굽 왕과 암묵적인 협정을 체결했으리라는 해석이 따른다. 그러나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불안정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공략하여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다는 입장이다.

- 9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When Shishak king of Egypt attacked Jerusalem, he carried off the treasures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the treasures of the royal palace. He took everything, including the gold shields Solomon had made.

- 10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So King Rehoboam made bronze shields to replace them and assigned these to the commanders of the guard on duty at the entrance to the royal palace.

- 11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Whenever the king went to the LORD's temple, the guards went with him, bearing the shields, and afterward they returned them to the guardroom.

- 12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Because Rehoboam humbled himself, the LORD's anger turned from him, and he was not totally destroyed. Indeed, there was some good in Juda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애굽 왕 시삭이 남 유다를 침략합니다(1~8).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르호보암이 결국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1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왕에게서 사라지자 백성도 덩달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인간의 군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때에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2절). 애굽은 한때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한 여로보암이 몸을 피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의 왕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심판하시는 계획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시삭 왕을 따른 군대의 수만 보아도 르호보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어렵지 않게 느껴질 정도입니다(3절). 풍전등화 같은 신세를 실감한 유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5절) 그러자 왕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조금 임하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는 넘기겠으나 죽지는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7~8절).

2. 심판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변화됩니다(9~12).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해 르호보암과 백성은 이방 왕의 종이 되는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과 왕궁의 온갖 보물을 빼앗아 갑니다(9절). 특히나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던 금 방패마저 빼앗긴 현실은 왕과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을 듯합니다. 심지어 금도 은도 아닌 놋으로 만든 방패를 손에 쥐며 르호보암을 수호하는 경호원의 모습은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10~11절). 그럼에도 화려한 보물은 빼앗겼지만 여전히 살아갈 땅이 있다는 것, 나아가 땅에서 살아갈 생명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즉 스스로 검비하여 여호와와 얼굴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시며,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에게 살 기회를 열어 주고 계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강성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왕과 백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핍이 은혜라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2. 귀한 공동체는 바벨론으로 유배를 갔다가 폐허가 된 고향 땅에 돌아온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상상하며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7:10~14 ¹⁰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¹¹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¹²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¹³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¹⁴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얹어 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After Job had prayed for his friends, the LORD made him prosperous again and gave him twice as much as he had before.

- 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쉬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All his brothers and sisters and everyone who had known him before came and ate with him in his house. They comforted and consoled him over all the trouble the LORD had brought upon him, and each one gave him a piece of silver and a gold ring.

-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The LORD blessed the latter part of Job's life more than the first. He had fourteen thousand sheep, six thousand camels, a thousand yoke of oxen and a thousand donkeys.

13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And he also had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14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The first daughter he named Jemimah, the second Keziah and the third Keren-Happuch,

15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Nowhere in all the land were there found women as beautiful as Job's daughters, and their father granted them an inheritance along with their brothers,

16 그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After this, Job lived a hundred and forty years; he saw his children and their children to the fourth generation,

17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And so he died, old and full of years,

42:11 케쉬타

히브리어) '케쉬타'는 고대 화폐 단위

42:13 일곱

히브리어) 칠의 배수의 뜻도 있음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10)

매우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로 하여금 욥에게 찾아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씀대로 욥을 찾아가게 되는데(12:9), 본 절은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매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욥의 회복이 비로소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고, 말씀을 듣고, 눈으로 주의 영광을 뵈옵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친구들을 비난하기보다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욥에게 고난이 허락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며, 그 마음에 감동해서서 이전보다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주목하게 됩니다.

2. 의인이 있는 땅에 회복이 일어납니다(11~17).

한창 비난을 일삼고 정죄하는 친구들이 눈앞에 찾아왔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구절을 통하여 마음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즉 욥 자신을 구원하시며 온전케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욥을 칭찬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떠올리게 됩니다(1:9). 그러니까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로 회복되었고, 나아가 다른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마음이 심중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욥을 통해 그가 서 있는 땅을 온갖 짐승으로 풍성케 하시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는 생명의 축복을 더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에서 고난, 고난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욥기서가 나와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욥이 드린 기도의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 고난을 통해서 까닭 없는 믿음을 회복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된 욥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9:13~18 ¹³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¹⁴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¹⁵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¹⁶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¹⁷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¹⁸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추억 하나

글 허니브리지 13기



권순범(남편), 김숙한(아내)

담임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 강사님, 많은 분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 주셔서 1박 2일 일정이 정말 풍성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내의 신혼부부들이 잘 정착하도록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주시니 3040 공동체가 궁금해지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13기 신혼부부들과의 시간도 참 즐거웠는데, 앞으로 공동체에서 자주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의지가 많이 됩니다. 다른 신혼부부들에게도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김기환(남편), 조혜진(아내)

허니브리지를 통해 평생에 걸친 주의 가정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큰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

김상문(남편), 지예진(아내)

소망교회 신혼부부 정착 최고의 프로그램! 담임 목사님의 취지와 애정이 느껴지고 교역자 분들과 멘토님들의 섬김을 온 맘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허니브리지였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석홍(남편), 차승하(아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런 자리에는 처음 참석하는 거라서 긴장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부부의 신앙생활이 잘 정착되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신종오(남편), 신나정(아내)

기대했던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고, 예상치 못한 감동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로 살아가는 시간이 좋기도 하지만 처음이라 생기는 고민도 많은데,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참 좋았어요.

안진형(남편), 임재연(아내)

대학부/청년부를 거쳐 신혼부부라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매주 성인 예배에 참석만 했던 저희 부부에게 함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혼부부 공동체와의 교제는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신앙적으로 해이해진 모습을 돌아보며 복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같은 또래 부부들을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니 공감도 되고 든든한 신앙공동체를 얻은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또 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 가정에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허니브리지 감사합니다!!

홍하준(남편), 윤희람(아내)

삶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바쁘게 준비하다 보니, 막상 더 중요한 결혼 자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아쉬웠던 차에 허니브리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시기를 걷는 신혼부부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마음에 공감하며, 부부 됨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빠르게 스치는 일상 중에 신혼부부로서의 추억 한 편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경화(남편), 정지선(아내)

제2의 인생 출발선에 비슷하게 선 부부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약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가정의 모습을 그리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 부부 관계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내용의 강의와 따뜻한 교제는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허니브리지 13기와 함께한 이 시간을 평생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시기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섬김의 손길이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0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2/10~16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시 56:10)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월요일

예레미야 1:1~10

오늘의 찬송 526 목마른 자들아

 말씀 속으로

- 1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The words of Jeremiah son of Hilkiah, one of the priests at Anathoth in the territory of Benjamin,

- 2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십삼 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in the thirteenth year of the reign of Josiah son of Amon king of Judah,

- 3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십일년 말까지 곧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and through the reign of Jehoiakim son of Josiah king of Judah, down to the fifth month of the eleventh year of Zedekiah son of Josiah king of Judah, when the people of Jerusalem went into exile,

- 4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Ah, Sovereign LORD,” I said, “I do not know how to speak; I am only a child.”

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But the LORD said to me, “Do not say, ‘I am only a child.’ You must go to everyone I send you to and say whatever I command you.

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declares the LORD.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Then the LORD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and said to me, “Now,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See, today I appoint you over nations and kingdoms to uproot and tear down, to destroy and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t.”

1:1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역이다. 솔로몬의 반역자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인 아나돗에서 예레미야가 출생한다. 기록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이다.

1:2 요시아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한 해는 주전 639년으로 알려진다. 요시아 통치 13년은 주전 626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3 여호아킴

여호아킴은 요시아와 달리 약한 왕으로 평가된다. 바벨론보다 애굽을 선호하여 주전 605년경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로 잡아간다. 이후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다가 애굽으로 돌아서면서 2차 포로 이주가 이어진다.

1:3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언급되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조연을 거린 인물로 묘사된다(렘 21:1~10, 38:14~28).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1~3).

흔히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끔찍한 사건을 전부 경험하며, ‘여호와가 일으키신다’는 이름의 의미만큼이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유다 왕 요시아,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이름을 차례대로 언급하며 암묵적으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늠하게 합니다(2~3절). 이 시기에 열강은 크게 바벨론과 앗수르로 대립되며 패권 싸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는데 혼란스런 틈을 타 남 유다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집권한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말씀이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 다시 말해 솔로몬 생전에 반역을 꾀한 아도니야를 지지했던 아비야달 제사장의 고향에서 나고 자란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1절). 사실상 왕가의 입장에서는 변방의 사람으로 간주된 사람이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황폐해진 땅 위에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2.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가 두려워합니다(4~10).

열강의 패권에 둘러싸여 남 유다의 역사도 여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는 한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는 사건을 넘어 역사 가운데 새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5절)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구속하심을 입은 예레미야의 정체성이 규명되는 순간, 그를 통하여 말씀을 받게 될 남 유다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이’라는 단어로 일축시키는 한마디에 하나님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일으키고 또 일으키시며,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6~8절).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예레미야 자신 안에 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통해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의 미래를 엿보게 됩니다(10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이스라엘의 악행을 뽑고, 헐고, 무너트리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에 변방의 사람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2. 예레미야서의 문이 열리며 특별한 구속의 은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이유를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 나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함께하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2:1~6 ¹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²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³ 열 줄 현악기와 거문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⁴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어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⁵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큼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⁶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2

역대하 12:13~16

화요일

오늘의 찬송 312 너 하나님께 이끄러

 말씀 속으로

- 13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사십일 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King Rehoboam established himself firmly in Jerusalem and continued as king. He was forty-on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seventeen years in Jerusalem, the city the LORD had chosen out of all the tribes of Israel in which to put his Name. His mother's name was Naamah; she was an Ammonite.

- 14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He did evil because he had not set his heart on seeking the LORD.

- 15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As for the events of Rehoboam's reign, from beginning to en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records of Shemaiah the prophet and of Iddo the seer that deal with genealogies? There was continual warfare between Rehoboam and Jeroboam.

16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Rehoboam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the City of David, And Abij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12:16 다윗 성에 장사
되고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
구하고 르호보암은 왕
의 묘실에 장사되는 영
예를 누린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르호보암에 관한 평가가 기록됩니다(13~14).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갑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의 나이 41세에 왕으로 올라 예루살렘에서 17년을 통치했다고 기술합니다. 그러나 이내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르며 르호보암의 시대를 압축적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14절) 물론 우리는 시삭의 침략이 일어난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도우심을 구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12:12). 그런 점에서 14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헤아리게 되는데, 아마도 ‘굳게’라는 표현에 정답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인간은 왜 이토록 신실하지 못한 존재인지 가슴이 미어지지만, 신실하지 못한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그 이름을 이곳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13절).

2. 저자의 의도를 고민해 봅니다(15~16).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 이어 흥미롭게도 15절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일어난 전쟁을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역대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주장을 제기하곤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 유다 사이에 신학이 재정립되기 시작하였는데, 돌이켜 보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지 않은 마음이 기나긴 포로 생활을 야기시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은 르호보암의 행보와, 좀처럼 전쟁이 그치지 않은 땅의 황폐함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한편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한 구절의 말씀을 따라 르호보암 이전의 왕이나 이후의 왕을 이해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과 백성을 살피며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 그들은 어떠하였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신실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을 대조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가정,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과 땅의 평화를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3:25~28 ²⁵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²⁶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²⁷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²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3

—
수요일

역대하 13:1~12

오늘의 찬송 38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말씀 속으로

1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In the eighteenth year of the reign of Jeroboam, Abijah became king of Judah,

2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hree years. His mother's name was Maacah, a daughter of Uriel of Gibeah. There was war between Abijah and Jeroboam,

3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사십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팔십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Abijah went into battle with a force of four hundred thousand able fighting men, and Jeroboam drew up a battle line against him with eight hundred thousand able troops,

4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Abijah stood on Mount Zemaraim,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said, "Jeroboam and all Israel, listen to me!

-
- 5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Don't you know t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has given the kingship of Israel to David and his descendants forever by a covenant of salt?

- 6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Yet Jeroboam son of Nebat, an official of Solomon son of David, rebelled against his master.

- 7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Some worthless scoundrels gathered around him and opposed Rehoboam son of Solomon when he was young and indecisive and not strong enough to resist them.

- 8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와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And now you plan to resist the kingdom of the LORD, which is in the hands of David's descendants. You are indeed a vast army and have with you the golden calves that Jeroboam made to be your gods.

13:1 아비아

열왕기상은 아비아의 통치를 부정적으로 기술한다(왕상 15:3). 이와 달리 역대하는 아비아의 연설에 초점을 맞추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다.

13:5 소금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언약을 보존하는 일을 상징한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강조된다.

- 9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But didn't you drive out the priests of the LORD, the sons of Aaron, and the Levites, and make priests of your own as the peoples of other lands do? Whoever comes to consecrate himself with a young bull and seven rams may become a priest of what are not gods,

- 10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As for us, the LORD is our God, and we have not forsaken him. The priests who serve the LORD are sons of Aaron, and the Levites assist them,

- 11 매일 아침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Every morning and evening they present burnt offerings and fragrant incense to the LORD. They set out the bread on the ceremonially clean table and light the lamps on the gold lampstand every evening. We are observing the requirements of the LORD our God. But you have forsaken him,”

1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God is with us; he is our leader. His priests with their trumpets will sound the battle cry against you. Men of Israel, do not fight agains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for you will not succe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아비야의 믿음이 돋보입니다(1~9).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12:15),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기사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비야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팔십만 대군이 전열을 갖춘 시점에서 그가 산 위에 올라 연설을 시작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5절) 그러니까 그의 눈에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모한 싸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상기시키는 듯한 아비야의 연설은 스마야의 설득에 발걸음을 돌이킨 아버지 르호보암의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11:4). 그를 인도하시며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되는 이때에 여로보암은 여전히 배반하고 대적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2. 아비야가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10~12).

여로보암의 침략이 눈앞에서 일어난 가운데 아비야는 다윗과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이 싸움이 가지는 의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도리어 여로보암과 북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들어서도록 회유합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치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제지를 받고 돌아왔다면(11:1~4), 놀랍게도 그의 아들은 ‘스스로’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른 태도를 가집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듯 성경은 우리 곧 아비야를 비롯한 백성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고 증언합니다(11절). 그리고 그의 믿음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자신과도 함께하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만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아비야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가 얻을 승리를 예견하게 됩니다(12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 본문에는 하나님과 아비야, 금송아지와 여로보암이 대조되는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여로보암을 향하여 ‘배반’이라는 수식어가 반복되는 흐름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 아비야의 믿음이 번제와 연결됩니다. 올 한 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모해 왔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1~2,14~15 ¹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²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¹⁴ 주님께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¹⁵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울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4

목요일

역대하 13:13~22

오늘의 찬송 292 주 없이 살 수 없네

 말씀 속으로

- 13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Now Jeroboam had sent troops around to the rear, so that while he was in front of Judah the ambush was behind them.

- 14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Judah turned and saw that they were being attacked at both front and rear. T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The priests blew their trumpets

- 15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and the men of Judah raised the battle cry. At the sound of their battle cry, God routed Jeroboam and all Israel before Abijah and Judah,

- 16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The Israelites fled before Judah, and God delivered them into their hands.

- 17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Abijah and his men inflicted heavy losses on them, so that there were five hundred thousand casualties among Israel's able men.

-
- 18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The men of Israel were subdued on that occasion, and the men of Judah were victorious because they relied on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 19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벰엘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Abijah pursued Jeroboam and took from him the towns of Bethel, Jeshanah and Ephron, with their surrounding villages,

- 20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Jeroboam did not regain power during the time of Abijah. And the LORD struck him down and he died,

- 21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But Abijah grew in strength. He married fourteen wives and had twenty-two sons and sixteen daughters,

- 22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 책에 기록되니라

The other events of Abijah's reign, what he did and what he said, are written in the annotations of the prophet Iddo.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여호와께 부르짖고”(13~18)

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역대기 저자는 아비야의 군대를 향하여 ‘용감했다’고 표현한 반면에 여로보암 진영을 두고는 ‘크다’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사십만 대 팔십만 장정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북 이스라엘 승리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는 셈입니다. 여기에 유다의 앞은 물론이고 뒤까지 복병으로 가득한 진영의 상황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13절). 그러나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확신한 아비야의 믿음이 이내 그와 백성을 일깨우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이끅니다(14~15절). 그러자 왕과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순식간에 북 이스라엘을 치시며 아비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15~16절). 그날에 유다의 손에 넘어가 죽임당한 용사는 무려 오십만 명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17절). 그러나 성경은 싸움에 나서거나 앞드러진 군사의 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목하라고 가르쳐 줍니다(18절).

2. 아비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19~22).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한 왕과 백성의 믿음은 적군을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성읍을 차지하게 합니다(19절). 이때에 적군의 우두머리이자 북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을 끝까지 쫓아가며 무찌른 아비야의 행보는, 담대함 만큼이나 물러서지 않는 끈기를 엿보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하고, 배반했던 여로보암의 결말을 함께 듣게 됩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와 치심을 입어 죽었고”(20절) 그야말로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후론 강성해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여로보암과 달리 점차 강성해지는 아비야의 나라는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 줍니다(21절). 그렇다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18절의 말씀이 나라를 잃고 돌아온 귀환 공동체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비야와 백성의 기도는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하나님을 신뢰한 한 해였는지 돌아봅시다.
2. 환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유익함이 됩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굳게 하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8:18~21 ¹⁸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¹⁹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 ²⁰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²¹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 년 동안 평안하니라

And Abijah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the City of David. Asa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and in his days the country was at peace for ten years.

- 2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Asa did what was good and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his God.

- 3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He removed the foreign altars and the high places, smashed the sacred stones and cut down the Asherah poles.

- 4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He commanded Judah to seek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and to obey his laws and commands.

5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He removed the high places and incense altars in every town in Judah, and the kingdom was at peace under him,

6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He built up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since the land was at peace. No one was at war with him during those years, for the LORD gave him rest,

7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Let us build up these towns,” he said to Judah, “and put walls around them, with towers, gates and bars. The land is still ours, because we have sought the LORD our God; we sought him and he has given us rest on every side.” So they built and prospered.

8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삼십 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이십팔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Asa had an army of three hundred thousand men from Judah, equipped with large shields and with spears, and two hundred and eighty thousand from Benjamin, armed with small shields and with bows. All these were brave fighting men,

- 9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Zerah the Cushite marched out against them with a vast army and three hundred chariots, and came as far as Mareshah,

- 10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Asa went out to meet him, and they took up battle positions in the Valley of Zephathah near Mareshah,

- 11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 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니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Then Asa called to the LORD his God and said, "LORD, there is no one like you to help the powerless against the mighty. Help us, O LORD our God, for we rely on you, and in your name we have come against this vast army. O LORD, you are our God; do not let man prevail against you."

- 12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The LORD struck down the Cushites before Asa and Judah. The Cushites fled,

-
- 13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 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and Asa and his army pursued them as far as Gerar. Such a great number of Cushites fell that they could not recover; they were crushed before the LORD and his forces. The men of Judah carried off a large amount of plunder.

- 14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They destroyed all the villages around Gerar, for the terror of the LORD had fallen upon them. They plundered all these villages, since there was much booty there.

- 15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They also attacked the camps of the herdsmen and carried off droves of sheep and goats and camels. Then they returned to Jerusal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1~8)

아비야 다음으로 아들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그의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줄곧 등장합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시대에는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였다면(12:15), 아버지 아비야 시대에는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13:20~21). 이제 아사의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는 평안이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6절). 이렇듯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기초하여 땅의 평안을 이야기하며 역대기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즉 아사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찢고, 백성으로 하여금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며 율법과 명령을 준행하도록 명령했을 때 사방에 평안이 임하였듯이 귀환 공동체 또한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땅을 귀경하라는 말씀입니다(3~5절). 남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왕 히스기야나 요시아에 앞서 선구자 역할을 한 아사의 면모를 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역사가 반복됩니다(9~15).

그런데 웬일인지 십 년에 이어진 평화가 위태롭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함께한 대군이 백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9절). 소식을 들은 아사가 서둘러 전열을 갖추며 전투태세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아비야가 드린 기도를 닮은 외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11절) 그러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아버지 때와 흡사하게 아사와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스 사람들이 줄행랑치는 일이 벌어집니다(12절). 그날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아사의 추격은 맹렬했고,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은 심히 많았습니다(13~15절). 한편으론 승리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사를 보면서 우리는 잠시 십 년의 평화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후에 기록된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선지자 오렛의 말씀 속에서 부요한 그때에 왕과 백성의 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15:7).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시대마다 왕과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때 승리를 얻고, 강성함을 누리는 과정을 살피면서 역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2. 전쟁과 평화, 평화와 전쟁에 관한 기록 속에는 왕과 백성의 기도가 자리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2:6~8,10~12 ⁶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⁷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⁸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¹⁰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¹¹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¹²'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What do you see, Jeremiah?" "I see the branch of an almond tree," I replied.

- 1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The LORD said to me, "You have seen correctly, for I am watching to see that my word is fulfilled."

- 13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again: "What do you see?" "I see a boiling pot, tilting away from the north," I answered.

-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The LORD said to me, "From the north disaster will be poured out on all who live in the land,

-
- 15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I am about to summon all the peoples of the northern kingdoms," declares the LORD. "Their kings will come and set up their thrones in the entrance of the gates of Jerusalem; they will come against all her surrounding walls and against all the towns of Judah.

- 16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I will pronounce my judgments on my people because of their wickedness in forsaking me, in burning incense to other gods and in worshiping what their hands have made.

- 17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Get yourself ready! Stand up and say to them whatever I command you. Do not be terrified by them, or I will terrify you before them.

- 18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Today I have made you a fortified city, an iron pillar and a bronze wall to stand against the whole land - against the kings of Judah, its officials, its priests and the people of the land.

- 19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They will fight against you but will not overcome you, for I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declares the LORD.

1:12 지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음이 비슷하다. 즉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루시겠다는 의의가 담겨 있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이 보입니다(11~12).

예레미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옵니다. “오늘 내가 못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1:10) 대조되는 표현 사이에서 호흡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트린다 … 그리고 ‘건설한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심으셨다는 말씀에 이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11절). 봄이 되는 시기에 가장 먼저 싹을 틔우는 살구나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변화될 남 유다의 미래를 묵상하게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을지, 깨달은 중에도 미처 거부하고 있었는지 상상해 보는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살구나무 환상을 보게 하시며 파괴하고 건설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12절). 봄이 오려면 겨울이 지나야 하고, 싹이 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한 시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견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복돋아 주십니다(13~19).

살구나무 가지 환상 다음으로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예레미야 눈앞에 보입니다(13절). 하나님은 환상의 의미를 풀어주시며 ‘북방’ 곧 ‘바벨론’으로 짐작되는 세력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읍 어귀를 점령하고, 모든 성읍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15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이방 신을 찾아가 분향한 죄 때문이었습니다(16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17절) 이때에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로 서게 될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전하는 자 예레미야는 온전히 전하는 수단이 되기를 부탁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내용을 빠트리지 않고 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다의 영적 상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여실히 드러내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혹시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다가올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18~1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새로움이 나기 위해서는 헐고, 파멸하고, 무너지는 과정이 선행해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는 시점에서 내 안에 무너지고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은 아이러니 말하는 예레미야를 어느 누구도 감히 해할 자가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있었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인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7:7~11 ⁷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⁸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⁹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¹⁰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¹¹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글 이순기 (부목사)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졸업 이후 펼쳐질 미래를 위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대부분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지만, 어떤 신학생들은 병원이나 학교의 원목, 사회단체, 상담 센터 등 다양한 사역의 길에 나서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신학생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와 연구를 병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목회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학문에 소홀하지 않아야 하는 모습이 목사 됨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소화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학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학문에 열심을 내려면 현실적이고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목회 사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인생의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봐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가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달리기만 할 경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번아웃^{Burn-out}이라는 것이 불현듯 찾아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은 좋지만 워커홀릭^{Workaholic}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안주하지 않고 매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안식과 쉼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있으면 재정이 없고, 재정이 준비되어 있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양쪽이 다 없을 수 있고, 시간도 있고 재정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여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허무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럴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이 많아도 아침에 씨를 뿌리고 또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해**

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안주하지 말고, 주어진 모습에 최선으로 임하는 것이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니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특하나 요새는 남편들이 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예전과 같이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집 밖에서만 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가사 분담을 하며 함께 일해야 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세상이 많이 변했다 하실 수 있지만, 가사 분담을 하는 것이 한 쪽이 다른 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며, 둘 다 잘하면 더 좋습니다. 이 방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정이 조금 더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흡족하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 그것을 축복의 기회와 결실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어진 기회에 열심을 다하되 모든 것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기는 해도, 이것에도 그리고 저것에도 준비된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동시에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또한 최선으로 임해 보고자 다시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땀을 내어 일하는 방향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17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2/17~23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
님을 찬양합니다. (시 71:6)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예레미야 2:1~13

오늘의 찬송 276 아버지여 이 죄인을

 말씀 속으로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2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Go and proclaim in the hearing of Jerusalem: I remember the devotion of your youth, how as a bride you loved me and followed me through the desert, through a land not sown,

3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Israel was holy to the LORD, the firstfruits of his harvest; all who devoured her were held guilty, and disaster overtook them,” declares the LORD.

4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Hear the word of the LORD, O house of Jacob, all you clans of the house of Israel.

-
- 5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This is what the LORD says: "What fault did your fathers find in me, that they strayed so far from me? They followed worthless idols and became worthless themselves.

- 6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They did not ask, 'Where is the LORD, who brought us up out of Egypt and led us through the barren wilderness, through a land of deserts and rifts, a land of drought and darkness, a land where no one travels and no one lives?'

- 7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I brought you into a fertile land to eat its fruit and rich produce. But you came and defiled my land and made my inheritance detestable.

- 8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The priests did not ask, 'Where is the LORD?' Those who deal with the law did not know me; the leaders rebelled against me. The prophets prophesied by Baal, following worthless idols.

2:6 사망의 그늘진 땅
깊은 흑암의 땅

2:8 관리
히브리어) '목자'

- 9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
와의 말씀이니라

Therefore I bring charges against you again,” declares the LORD. “And I will bring charges against your children’s children,

- 10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Cross over to the coasts of Kittim and look, send to Kedar and observe closely; see if there has ever been anything like this:

- 11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Has a nation ever changed its gods? (Yet they are not gods at all.) But my people have exchanged their Glory for worthless idols,

- 12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Be appalled at this, O heavens, and shudder with great horror, declares the LORD.

-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
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They have forsaken me, the spring of living water, and have dug their own cisterns, broken cisterns that cannot hold wat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유다의 악행을 드러내십니다(1~8).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1:5),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장에 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으로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받으시는 ‘첫 열매’로 불릴 만큼 아주 특별하고도 각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3절). 그들도 한때는 특별한 부르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신실히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2절).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들어서면서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7절). 민족의 역사를 예견해야 할 예언자는 이방 신의 이름을 험입어 이야기하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할 율법자는 보이지 않고, 제사장의 부패로 예배가 끊어진 땅에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입하는 말씀의 능력이 더욱 강렬하게 드러납니다(8절).

2. 스스로의 악행에 두려워하라!(9~13)

1-8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책망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방 신처럼 목석으로 만들어진 무감정의 신이었다면,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분노를 표출할 이유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고, 영과 진리로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신이라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며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이라’ 말하는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옳음을 판 악행에 대하여 심히 떨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12~13절). 이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본문은 광야 시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서도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함없었다면 어떠하셨을지 상상해 봅시다.
2.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안을 얻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근심을 얻는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올 한 해 나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잠잠히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6:7~10 ⁷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⁸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⁹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¹⁰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하 15:1~15

오늘의 찬송 9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의 영이 오렛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The Spirit of God came upon Azariah son of Oded.

2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He went out to meet Asa and said to him, "Listen to me, Asa and all Judah and Benjamin, The LORD is with you when you are with him. If you seek him, he will be found by you, but if you forsake him, he will forsake you.

3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 되었으나

For a long time Israel was without the true God, without a priest to teach and without the law.

4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But in their distress they turned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and sought him, and he was found by them.

5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In those days it was not safe to travel about, for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s were in great turmoil.

6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One nation was being crushed by another and one city by another, because God was troubling them with every kind of distress,

7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But as for you,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for your work will be rewarded.”

8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넳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When Asa heard these words and the prophecy of Azariah son of Oded the prophet, he took courage. He removed the detestable idols from the whole land of Judah and Benjamin and from the towns he had captured in the hills of Ephraim. He repaired the altar of the LORD that was in front of the portico of the LORD's temple.

15:8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

아사 통치 이전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암시한다.

- 9 또 유다와 베나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Then he assembled all Judah and Benjamin and the people from Ephraim, Manasseh and Simeon who had settled among them, for large numbers had come over to him from Israel when they saw that the LORD his God was with him,

- 10 아사 왕 제십오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They assembled at Jerusalem in the third month of the fifteenth year of Asa's reign,

- 11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At that time they sacrificed to the LORD seven hundred head of cattle and seven thousand sheep and goats from the plunder they had brought back,

- 12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They entered into a covenant to seek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with all their heart and soul,

1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All who would not seek the LORD, the God of Israel, were to
be put to death, whether small or great, man or woman.

14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
하매

They took an oath to the LORD with loud acclamation, with
shouting and with trumpets and horns.

15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
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
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All Judah rejoiced about the oath because they had sworn it
wholeheartedly. They sought God eagerly, and he was found
by them. So the LORD gave them rest on every sid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아사랴가 아사를 찾아갑니다(1~7).

아사가 왕으로 즉위하고, 남 유다는 1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14:1). 그런데 느닷없이 일어난 구스 사람의 침략이 유다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성경은 그날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한 왕의 기도를 삽입하며 사실상 아사 자신과 백성을 깨운 기도임을 깨닫게 합니다(14:11).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을 만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의 소식이 있고 난 후에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2절) 조금은 불안한 유다의 미래가 예견되는 듯한 음성이 다소 의아스럽지만 돌이키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사랴는 사사 시대 이야기를 꺼내들며 제 소견대로 행할 때 땅이 혼돈해지는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3~5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7절)

2.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8~15).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아사를 찾아갔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8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겠다는 굳은 결단이 심중에 내려집니다. 그가 마음을 굳세게 함과 동시에 온 땅에서는 가증한 물건이 철폐되고, 여호와와 재단이 재건됩니다. 한편으로 아버지 아비야의 시대에 이어 아들 아사의 시대에도 개혁의 바람이 필요했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돌이키고, 온전해져야 하는 이스라엘을 엿보게도 됩니다. 이 마음에 동화였는지 북에서부터 발걸음을 돌이키고 아사와 그의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예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9절). 그날에 왕과 백성이 모두 모인 예루살렘에서는 풍성한 제물로 제사가 드려지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하는 맹세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11~15절). 성경은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땅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바른 길로 안내하는 자가 따릅니다. 아사를 찾은 아사랴와 아사랴의 말을 들은 아사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는 기쁨이 내 삶에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2. 말씀은 듣는 자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다른 이가 살아나게 합니다. 12절을 나를 향하신 사건으로 받고,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3~6 ³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⁵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⁶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6 아사 왕의 어머니 마이카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뿔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King Asa also deposed his grandmother Maacah from her position as queen mother, because she had made a repulsive Asherah pole. Asa cut the pole down, broke it up and burned it in the Kidron Valley.

- 17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Although he did not remove the high places from Israel, Asa's heart was fully committed to the LORD all his life.

- 18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He brought into the temple of God the silver and gold and the articles that he and his father had dedicated.

- 19 이때부터 아사 왕 제삼십오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There was no more war until the thirty-fifth year of Asa's reign.

-
- 1 아사 왕 제삼십육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In the thirty-sixth year of Asa's reign Baasha king of Israel went up against Judah and fortified Ramah to prevent anyone from leaving or entering the territory of Asa king of Judah.

- 2 아사가 여호와와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 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Asa then took the silver and gold out of the treasuries of the LORD's temple and of his own palace and sent it to Ben-Hadad king of Aram, who was ruling in Damascus.

- 3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Let there be a treaty between me and you,” he said, “as there was between my father and your father. See, I am sending you silver and gold. Now break your treaty with Baasha king of Israel so he will withdraw from me.”

15:16 기드론 사넷가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기드론 시냇가는 예루살렘 성을 밖에 위치한다. 우상을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종종 언급된다(대하 29:16; 30:14).

- 4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혼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Ben-Hadad agreed with King Asa and sent the commanders of his forces against the towns of Israel. They conquered Ijon, Dan, Abel Maim and all the store cities of Naphtali.

15:17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가 남 유다 산당은 다 제하였지만, 북 이스라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따른다. 한편에서는 북 이스라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로 아사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산당이 제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암시한다.

- 5 바아샤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 지라

When Baasha heard this, he stopped building Ramah and abandoned his work,

- 6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샤가 라마를 건축 하던 돌과 재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 더라

Then King Asa brought all the men of Judah, and they carried away from Ramah the stones and timber Baasha had been using. With them he built up Geba and Mizpah.

16:6 게바와 미스바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미스
바는 북동쪽으로 13km
떨어진 성읍이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아사와 그의 어머니가 대조됩니다(16~19).

오렛의 아들 아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땅에서 가증한 것을 폐하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신실한 믿음을 맹세하는 일종의 서약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사가 얼마나 마음을 굳게 하였는지,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가증한 목상을 찍고 빵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우는 것도 모자라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명합니다(16절). 한편으로 아들이 개혁의 의지를 일으키며 새 일을 행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아이러니한 장면에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대조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질문하게 되는 이때에 또 하나의 역설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산당과,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아사의 마음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리감을 느끼며 다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17절).

2. 벤하닷이 약조를 깨트리고 아사를 돕습니다(1~6).

아사와 마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는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말씀이 통치하는 길인지 재물과 권력이 다스리는 길인지가 왕과 백성 앞에 끊임 없이 놓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을 강하게 한 아사 왕도 갈림길에선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본 단락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유다 침공을 알립니다(1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라마 성읍을 요새화하여 북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남 유다를 위협하고자 했는데, 아사가 보인 반응은 그에게 일어난 사소하지만 매우 큰 변화를 실감케 합니다. 구스 족속의 침략이 있을 때와는 달리 온갖 은금을 내어 아람 왕 벤하닷의 마음을 사고, 자신을 도와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2절). 그러자 벤하닷이 바아사와 맺은 이전의 협정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성읍을 치는 장면에서, 배신이 아닌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4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 17절은 일평생 온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 가는 사모함이 함께합니까?
- 아람 왕 벤하닷과 북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약조를 체결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벤하닷은 약조를 깨트려 아사를 돕고,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어기고 벤하닷을 의지합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5 ¹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²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³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⁴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⁵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7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At that time Hanani the seer came to Asa king of Judah and said to him: "Because you relied on the king of Aram and not on the LORD your God, the army of the king of Aram has escaped from your hand.

- 8 구스 사람과 룽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Were not the Cushites and Libyans a mighty army with great numbers of chariots and horsemen? Yet when you relied on the LORD, he delivered them into your hand.

- 9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For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earth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You have done a foolish thing, and from now on you will be at war."

-
- 10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Asa was angry with the seer because of this; he was so enraged that he put him in prison. At the same time Asa brutally oppressed some of the people.

- 11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The events of Asa's reign, from beginning to end,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kings of Judah and Israel.

- 12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In the thirty-ninth year of his reign Asa was afflicted with a disease in his feet. Though his disease was severe, even in his illness he did not seek help from the LORD, but only from the physicians.

- 13 아사가 왕위에 있는 지 사십일 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Then in the forty-first year of his reign Asa died and rested with his fathers.

- 14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 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They buried him in the tomb that he had cut out for himself in the City of David. They laid him on a bier covered with spices and various blended perfumes, and they made a huge fire in his hono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나옵니다(7~10).

북 이스라엘의 침략 앞에서 아사가 아람 왕 벤하닷의 마음을 사고, 나라의 안위를 꾀하고자 합니다. 비로소 이전에 있었던 아사랴와 아사 왕의 만남이 가진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15:2).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 아사가 경계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왕과 백성, 나라의 평안을 지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7절) ‘벗어났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아사의 손에 ‘넘기셔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아사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10절). 평안을 노래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아사에게 두 명의 선지자가 찾아오는 은혜가 함께하였지만, 그의 말로가 그리 선하지는 못합니다.

2. 아사의 발에 병이 듭니다(11~14).

아사에게는 분명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니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그러하고, ‘궁홀’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하나니’가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악한 행로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9절).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이 보내 주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처하고 맙니다. 이러한 그의 행로를 표현하는 듯 역대기 저자는 아사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다고 기술합니다(12절). 발은 곧 사람의 인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끝까지 굳게 하지 못한 죄가 여실히 드러나는 셈입니다. 그의 완고한 마음은 위독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애써 의원을 찾는 수고에도 물어냅니다. 그래서인지 왕실의 묘에 장사되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였지만 유독 묘를 둘러싼 각양 향 재료, 가득히 채운 상은 아사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를 주인 삼았는지를 잠시 생각하게 합니다(14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와 하나니가 찾아와 바른 길을 교훈해 주었지만 아사는 끝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를 보면서 나는 무엇에 마음을 굳세게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2. 발에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한 아사의 기록을 살피며, 올 한 해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1~5 ¹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²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³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⁵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하 17:1~19

오늘의 찬송 95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말씀 속으로

- 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Jehoshaphat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and strengthened himself against Israel.

- 2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He stationed troops in all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and put garrisons in Judah and in the towns of Ephraim that his father Asa had captured.

- 3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The LORD was with Jehoshaphat because in his early years he walked in the ways his father David had followed. He did not consult the Baals

- 4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but sought the God of his father and followed his commands rather than the practices of Israel.

-
- 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The LORD established the kingdom under his control; and all Judah brought gifts to Jehoshaphat, so that he had great wealth and honor.

- 6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His heart was devoted to the ways of the LORD; furthermore, he removed the high places and the Asherah poles from Judah.

- 7 그가 왕위에 있는 지 삼 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In the third year of his reign he sent his officials Ben-Hail, Obadiah, Zechariah, Nethanel and Micaiah to teach in the towns of Judah.

- 8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With them were certain Levites-Shemaiah, Nathaniah, Zebadiah, Asahel, Shemiramoth, Jehonathan, Adonijah, Tobijah and Tob-Adonijah - and the priests Elishama and Jehoram.

- 9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They taught throughout Judah, taking with them the Book of the Law of the LORD; they went around to all the towns of Judah and taught the people.

- 10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The fear of the LORD fell on all the kingdoms of the lands surrounding Judah, so that they did not make war with Jehoshaphat.

- 11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숫양 칠천 칠백 마리와 숫염소 칠천칠백 마리를 드렸더라

Some Philistines brought Jehoshaphat gifts and silver as tribute, and the Arabs brought him flocks: seven thousand seven hundred rams and seven thousand seven hundred goats.

- 12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Jehoshaphat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he built forts and store cities in Judah

-
- 13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and had large supplies in the towns of Judah. He also kept experienced fighting men in Jerusalem.

- 14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삼십만 명을 거느렸고

Their enrollment by families was as follows: From Judah, commanders of units of 1,000: Adnah the commander, with 300,000 fighting men;

- 15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니 이십팔만 명을 거느렸고

next, Jehohanan the commander, with 280,000;

- 16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이십만 명을 거느렸고

next, Amasiah son of Zicri, who volunteered himself for the service of the LORD, with 200,000.

- 17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이십만 명을 거느렸고

From Benjamin: Eliada, a valiant soldier, with 200,000 men armed with bows and shields;

18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십팔만 명을 거느렸으니

next, Jehozabad, with 180,000 men armed for battle,

19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These were the men who served the king, besides those he stationed in the fortified cities throughout Juda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1~9).

아버지 아사의 시대는 십 년에 이어진 평안이 소개되며 열려졌다면(14:1), 아들 여호사밧 시대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부귀영화가 연결되어 다루어집니다(3~5절). 그는 아버지 아사의 비극적인 말로에서 벗어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였습니다(6절).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굳건한 개혁 의지는 마음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유다 전 지역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백, 레위인, 제사장을 파견하는 결단으로도 이어집니다(7~9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모든 성읍 곳곳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백성들 역시 왕과 마음을 함께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곧 북 이스라엘과 결정적으로 구별되었던 남 유다의 행보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남과 북을 쪼개시고, 남 유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어 가시고자 한 이유를 잠잠히 묵상하게 됩니다(4절).

2.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10~19).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한 왕과 백성의 연합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운행되며 확장되어 가는 다윗 왕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표현하는 다윗 왕조에 관하여 본 단락은 그 강대함을 묘사합니다. 먼저는 유다를 둘러싼 사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사밧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였다고 전하는데, 그때에 블레셋은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는 짐승 떼를 드릴 정도였습니다(10~11절). 여호사밧은 나라가 강대해질수록 요새화 전략을 튼튼히 세우며 외부의 침입에 지혜롭게 대처하기도 합니다(12~13절). 특히나 군사 중에서 어떤 이는 자신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소개되며 맡겨진 직분에 충실했던 면모를 보여 주는가 하면(16절), 용사들 모두가 왕을 모시는 자로서의 부름에 신실했던 여호사밧의 나라를 느끼게 만듭니다(19절). 여기서 우리는 왕과 백성이 하나된 비결이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산 삶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사의 악한 말로에 이어 여호사밧의 개혁이 새롭게 일어나는 흐름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일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3:1~5 ¹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 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² 주님,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³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⁴ 큰 물 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엄위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엄위하십니다. ⁵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예레미야 2:14~28

오늘의 찬송 52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말씀 속으로

14 이스라엘이 종이나 씨종이나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Is Israel a servant, a slave by birth? Why then has he become plunder?”

15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Lions have roared; they have growled at him. They have laid waste his land; his towns are burned and deserted.

16 뉘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Also, the men of Memphis and Tahpanhes have shaved the crown of your head.

17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Have you not brought this on yourselves by forsaking the LORD your God when he led you in the way?

-
- 18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됴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됴이나

Now why go to Egypt to drink water from the Shihor? And why go to Assyria to drink water from the River?

- 19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 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Your wickedness will punish you; your backsliding will rebuke you. Consider then and realize how evil and bitter it is for you when you forsake the LORD your God and have no awe of me," declares the Lord, the LORD Almighty.

- 20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Long ago you broke off your yoke and tore off your bonds; you said, 'I will not serve you!' Indeed,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every spreading tree you lay down as a prostitute.

- 21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됴은 어찌 됴이나

I had planted you like a choice vine of sound and reliable stock. How then did you turn against me into a corrupt, wild vine?

2:15 어린 사자들

열방 곧 애굽, 앗수르,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성읍을 불태웠다(렘 2:18, 36).

2:18 시홀

나일

2:18 그 강물

유브라테

- 22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Although you wash yourself with soda and use an abundance of soap, the stain of your guilt is still before m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 23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말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How can you say, ‘I am not defiled; I have not run after the Baals’? See how you behaved in the valley; consider what you have done. You are a swift she-camel running here and there,

- 24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혈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a wild donkey accustomed to the desert, sniffing the wind in her craving-in her heat who can restrain her? Any males that pursue her need not tire themselves; at mating time they will find her.

- 25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나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Do not run until your feet are bare and your throat is dry. But you said, ‘It’s no use! I love foreign gods, and I must go after them.’

-
- 26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As a thief is disgraced when he is caught, so the house of Israel is disgraced - they, their kings and their officials, their priests and their prophets,

- 27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They say to wood, 'You are my father,' and to stone, 'You gave me birth,' They have turned their backs to me and not their faces; yet when they are in trouble, they say, 'Come and save us!'

- 28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Where then are the gods you made for yourselves? Let them come if they can save you when you are in trouble! For you have as many gods as you have towns, O Juda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죄악 중에 고통스러워 할 미래가 예고됩니다(14~19).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이스라엘 존재를 규명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2:3). 과연 이보다 영광스럽고 기쁜 호칭이 있을까 싶지만 지금은 영락없이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인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14절).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시점에 놀랍게도 우리는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을 지나 기름진 땅으로 들어오게 된 행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땅이 변하는 순간, 이스라엘 눈에 하나님보다 애굽의 나일강이 부요해 보이고, 열강 앗수르의 힘이 더욱 견고하게 다가옵니다(18절). 이스라엘의 변화된 마음을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를 ‘버렸고’, 그 속에는 경외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19절). 이제는 그들의 어둡고 어두운 마음이 이스라엘을 얹어매는 올무가 되어 재앙 중에 고통당하는 비참함을 불러일으킵니다.

2.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20~28)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2:19). 그런데 보다 끔찍한 현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지른 죄를 숨기며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외친 데 있습니다(23절). 그들의 거짓된 경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이때에 이방 포도나무에 들러붙은 악한 가지가 된 이스라엘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21절). 소산의 첫 열매로 선택된 그들이 순전함을 상실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세가 된 셈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갖추었지만 이스라엘의 발은 정작 나무를 향해, 돌을 향해, 우상을 향해, 그것도 골짜기 속에 난 아주 은밀한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26~28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죄는 없는 법, 잣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사용해 보아도 그들 앞에 악행은 가득할 뿐입니다(22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선택이 가지는 중대함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비추어 선택을 내리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자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경건을 들추어내시며 책망하십니다. 마음에 든 악한 것을 정결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0:14~19 ¹⁴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¹⁵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게 키우신 헛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¹⁶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¹⁷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 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¹⁸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¹⁹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봉헌

시 조정태 (집사)



수반에 드러진 들꽃처럼
이 아침 넘치는 햇살처럼
오르간의 맑은 음향처럼
주 앞에 나아옵니다

내게 있는 기쁨,
아픔과 눈물,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들과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들,
나날이 주시는 위로와 열매들을 받쳐들고
생명의 주 앞에 나아옵니다

내게 있는 어느 것 하나
지으시지 않은 것 없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 없으니
지은 바 된
이 생명을 받아 주소서.

24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2/24~30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시 125:1)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5

성탄절

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말씀 속으로

- 1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Now Jehoshaphat had great wealth and honor, and he allied himself with Ahab by marriage.

- 2 이 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Some years later he went down to visit Ahab in Samaria. Ahab slaughtered many sheep and cattle for him and the people with him and urged him to attack Ramoth Gilead.

- 3 이스라엘 왕 이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Ahab king of Israel asked Jehoshaphat king of Judah, "Will you go with me against Ramoth Gilead?" Jehoshaphat replied, "I am as you are, and my people as your people; we will join you in the war."

4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
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But Jehoshaphat also said to the king of Israel, "First seek the counsel of the LORD."

5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
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 하니 그들이 이
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은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
다 하더라

So the king of Israel brought together the prophets - four hundred men - and asked them, "Shall we go to war against Ramoth Gilead, or shall I refrain?" "Go," they answered, "for God will give it into the king's hand."

6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
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But Jehoshaphat asked, "Is there not a prophet of the LORD here whom we can inquire of?"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
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The king of Israel answered Jehoshaphat, "There is still one man through whom we can inquire of the LORD, but I hate him because he never prophesies anything good about me, but always bad. He is Micaiah son of Imlah." "The king should not say that," Jehoshaphat replied.

- 8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So the king of Israel called one of his officials and said, "Bring Micaiah son of Imlah at once."

-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Dressed in their royal robes, the king of Israel and Jehoshaphat king of Judah were sitting on their thrones at the threshing floor by the entrance to the gate of Samaria, with all the prophets prophesying before them.

- 10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Now Zedekiah son of Kenaanah had made iron horns, and he declared, "This is what the LORD says: 'With these you will gore the Arameans until they are destroyed.'"

- 11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All the other prophets were prophesying the same thing. "Attack Ramoth Gilead and be victorious," they said, "for the LORD will give it into the king's hand."

-
- 12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The messenger who had gone to summon Micaiah said to him, "Look, as one man the other prophets are predicting success for the king. Let your word agree with theirs, and speak favorably."

- 13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But Micaiah sai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I can tell him only what my God says."

- 14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말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When he arrived, the king asked him, "Micaiah, shall we go to war against Ramoth Gilead, or shall I refrain?" "Attack and be victorious," he answered, "for they will be given into your hand."

- 15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The king said to him, "How many times must I make you swear to tell me nothing but the truth in the name of the LORD?"

- 16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느니라

Then Micaiah answered, "I saw all Israel scattered on the hill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and the LORD said, 'These people have no master. Let each one go home in peace.'"

- 1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The king of Israel said to Jehoshaphat, "Didn't I tell you that he never prophesies anything good about me, but only bad?"

- 18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Micaiah continued, "Therefore hear the word of the LORD: I saw the LORD sitting on his throne with all the host of heaven standing on his right and on his left,

- 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And the LORD said, 'Who will entice Ahab king of Israel into attacking Ramoth Gilead and going to his death there?' One suggested this, and another that,

-
- 20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Finally, a spirit came forward, stood before the LORD and said, 'I will entice him,' 'By what means?' the LORD asked,

- 21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I will go and be a lying spirit in the mouths of all his prophets,' he said. 'You will succeed in enticing him,' said the LORD. 'Go and do it.'

- 22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So now the LORD has put a lying spirit in the mouths of these prophets of yours. The LORD has decreed disaster for you."

- 23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Then Zedekiah son of Kenaanah went up and slapped Micaiah in the face, "Which way did the spirit from the LORD go when he went from me to speak to you?" he asked,

- 24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Micaiah replied, "You will find out on the day you go to hide in an inner room."

- 25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The king of Israel then ordered, "Take Micaiah and send him back to Amon the ruler of the city and to Joash the king's son,

- 26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and say, This is what the king says: 'Put this fellow in prison and give him nothing but bread and water until I return safely.'"

- 27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Micaiah declared, "If you ever return safely, the LORD has not spoken through me." Then he added, "Mark my words, all you peopl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동맹이 체결됩니다(1~8).

17장은 여호사밧이 받고 누린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역대의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18장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강성해져 가는 때에 북 이스라엘 왕 아합과 손을 잡고 세력을 키우고자 한 시도를 보여 줍니다.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는 북 이스라엘의 침략을 앞두고 아람 왕 벤하닷과 손을 잡았다면(16:1~6), 아들 여호사밧은 역으로 북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아람 세력을 무너트리는 일에 힘을 모읍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하였고, 맺어진 혼인 관계를 통하여 두 가문이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 인척 관계가 형성된 지 2년이 지난 후, 아합 왕의 요청에 따라 여호사밧이 아람을 치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2~3절). 당시에 여호사밧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한 것은 지혜로운 처사였지만(4절), 두 왕 모두 거짓 선지자의 조언을 따랐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2. 아합이 분노하며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9~27).

여호사밧의 청에 아합이 모은 자들은 선지자 사백 명과, 여호와와 선지자 미가야로 구분됩니다. ‘선지자’라고 칭한 표현과 다르게 미가야를 향해서는 ‘여호와와 선지자’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합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가 정말로 미가야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듣기 싫은 소리를 전하는 자를 불러들이지는 않았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을 보내어 미가야를 데려오도록 인도하지만, 끝내 미가야가 전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급기야 전쟁에 나가면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백성의 미래를 듣자 화를 버럭 내며 미가야의 뺨을 치는 행동에서 아합이 자신을 이기지 못한 어리석음에 쓸쓸함을 금치 못합니다. 옳은 말을 한 미가야는 정작 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여 가셨는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아람의 관계에서 배신과 적의가 가득한 세상이 묘사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역대기하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미가야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보인 아합의 행동은 심중에 자리한 두려움을 내심 드러냅니다. 반면에 옥에 갇힌 중에도 담담한 미가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8~12 ⁸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⁹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¹⁰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¹¹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¹²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28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나라

So the king of Israel and Jehoshaphat king of Judah went up
to Ramoth Gilead.

29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
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The king of Israel said to Jehoshaphat, "I will enter the battle in
disguise, but you wear your royal robes." So the king of Israel
disguised himself and went into battle.

30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
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Now the king of Aram had ordered his chariot commanders,
"Do not fight with anyone, small or great, except the king of
Israel."

-
- 31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When the chariot commanders saw Jehoshaphat, they thought, 'This is the king of Israel.' So they turned to attack him, but Jehoshaphat cried out, and the LORD helped him. God drew them away from him,

- 32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for when the chariot commanders saw that he was not the king of Israel, they stopped pursuing him,

- 33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술기를 쏘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But someone drew his bow at random and hit the king of Israel between the sections of his armor. The king told the chariot driver, "Wheel around and get me out of the fighting. I've been wounded."

- 34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All day long the battle raged, and the king of Israel propped himself up in his chariot facing the Arameans until evening. Then at sunset he di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에 임합니다(28~30).

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거부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28절). 이제 우리는 두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미가야는 옥중에 매여 있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목상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 아합은 자신은 변장할 테니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29절). 두 사람 사이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는지를 잠시 짐작하게 하는 대목에서 흥미롭게도 우리는 아합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숨기려는 마냥 아합은 잔뜩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면, 여호사밧의 몸에는 누가 보아도 왕임을 직감하게 하는 왕복이 걸쳐집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두 사람을 겨냥하는 아람 왕의 선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30절)

2. 여호사밧은 구원을 얻고, 아합은 비참히 죽습니다(31~34).

구태여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아람 왕의 선포는 군대를 심히 격양시켰을 듯합니다. 그만큼 격렬했을 전쟁터가 상상되는 가운데 비로소 상황을 직감했는지 여호사밧이 소리를 크게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31절). ‘소리를 지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기도하다’와 연결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은 여호사밧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길르앗 라못까지 올라온 여호사밧을 구원해 주셨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31절). 그런데 웬일인지 변장을 꾀꿨던 아합 왕은 도리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누군가 무심코 당긴 활에 속절없이 부상을 입은 모양인데,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33~34절).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휩쓸려 변장까지 한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두려운 마음을 숨기고 변장한 아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떠하였을지 상상해 봅시다.
2. 여호사밧은 눈이 열려 위급한 상황을 깨닫고 기도하였지만 아합은 변장을 무기 삼아 안위를 확신했을 듯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역 앞에서 나는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9:12~15 ¹² 사람이 제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¹³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¹⁴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¹⁵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When Jehoshaphat king of Judah returned safely to his palace in Jerusalem,

- 2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Jehu the seer, the son of Hanani, went out to meet him and said to the king, "Should you help the wicked and love those who hate the LORD? Because of this, the wrath of the LORD is upon you.

- 3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There is, however, some good in you, for you have rid the land of the Asherah poles and have set your heart on seeking God."

-
- 4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Jehoshaphat lived in Jerusalem, and he went out again among the people from Beersheba to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urned them back to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 5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He appointed judges in the land, in each of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 6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이니라

He told them, "Consider carefully what you do, because you are not judging for man but for the LORD, who is with you whenever you give a verdict.

- 7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Now let the fear of the LORD be upon you. Judge carefully, for with the LORD our God there is no injustice or partiality or bribery."

- 8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In Jerusalem also, Jehoshaphat appointed some of the Levites, priests and heads of Israelite families to administer the law of the LORD and to settle disputes. And they lived in Jerusalem,

- 9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He gave them these orders: "You must serve faithfully and wholeheartedly in the fear of the LORD.

- 10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레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나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In every case that comes before you from your fellow countrymen who live in the cities - whether bloodshed or other concerns of the law, commands, decrees or ordinances - you are to warn them not to sin against the LORD; otherwise his wrath will come on you and your brothers. Do this, and you will not sin,

-
- 11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하실지로다 하니라

Amariah the chief priest will be over you in any matter concerning the LORD, and Zebadiah son of Ishmael, the leader of the tribe of Judah, will be over you in any matter concerning the king, and the Levites will serve as officials before you. Act with courage, and may the LORD be with those who do well.”

19:8 예루살렘

각 지역에서 내려진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예루살렘 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8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히브리어)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이릅니다(1~3).

아합은 열심히 변장까지 하며 살고자 애썼지만 무심코 당겨진 활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왕복을 두른 여호사밧은 목숨을 보전받고 예루살렘에 평안히 돌아오게 됩니다(1절). 하나님을 찾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생과 사가 오고간 현장에서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도모한 것에 관한 책망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2절) 그럼에도 죄의 책망 뒤에 따라오는 선견자 예후의 말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사밧의 죄를 아시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을 보시고 후히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3절).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색다른 계산법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선불리 의와 옳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2. 여호사밧이 사법 개혁을 단행합니다(4~11).

선견자 예후의 말이 있고 난 후, 4절은 예루살렘에 ‘산’ 여호사밧의 삶을 기술해 갑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행보에 이어 ‘살았다’라고 말하는 구절에서 어느 정도 흘러간 시간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며, 달라진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가 그러한 것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는가 하면(4절),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내리기를 명령합니다(5~7절). 이때에 그는 형제에게 내리는 올바른 판결이 하나님께도 합당한 것이라고 가르치며(10절), 하나님을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경외하듯이 형제자매 서로 간에도 생명을 존대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8~9절). 그가 이룬 사법의 개혁이 전쟁터에서 구원받은 사건 이후에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할 때에 올바른 재판이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을 경험한 왕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없이 높וני를 맞추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지 묵상합니다.
2.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이후 여호사밧이 단행한 사법 개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산 나에게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4:9~15 ⁹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¹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¹¹ 젊은이들이,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¹²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¹³ 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¹⁴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¹⁵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하 20:1~13

오늘의 찬송 364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 속으로

- 1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After this, the Moabites and Ammonites with some of the Meunites came to make war on Jehoshaphat.

- 2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Some men came and told Jehoshaphat, "A vast army is coming against you from Edom, from the other side of the Sea. It is already in Hazazon Tamar" (that is, En Gedi).

- 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Alarmed, Jehoshaphat resolved to inquire of the LORD, and he proclaimed a fast for all Judah.

- 4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The people of Judah came together to seek help from the LORD; indeed, they came from every town in Judah to seek him.

5 여호사밧이 여호와와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Then Jehoshaphat stood up in the assembly of Judah and Jerusalem at the temple of the LORD in the front of the new courtyard

6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and said: "O LORD, God of our fathers, are you not the God who is in heaven? You rule over all the kingdoms of the nations. Power and might are in your hand, and no one can withstand you.

7 우리 하나님이지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O our God, did you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is land before your people Israel and give it forever to the descendants of Abraham your friend?

8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They have lived in it and have built in it a sanctuary for your Name, saying,

20:1 마온
암몬

- 9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If calamity comes upon us, whether the sword of judgment, or plague or famine, we will stand in your presence before this temple that bears your Name and will cry out to you in our distress, and you will hear us and save us.'

- 10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But now here are men from Ammon, Moab and Mount Seir, whose territory you would not allow Israel to invade when they came from Egypt; so they turned away from them and did not destroy them.

- 11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See how they are repaying us by coming to drive us out of the possession you gave us as an inheritance.

- 12 우리 하나님이며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O our God, will you not judge them? For we have no power to face this vast army that is attacking us. We do not know what to do, but our eyes are upon you."

13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All the men of Judah, with their wives and children and little
ones, stood there before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이방 연합군의 침략 앞에 여호사밧이 앞드립니다(1~4).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이 소개된 이후, 본 장은 이방 연합군의 침략을 알립니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2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가리켜 ‘큰’ 무리라고 일컫는 전령의 보고를 듣자 여호사밧 마음 안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3절).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행보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왕이 여호와와 얼굴을 구하고 그를 따라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3~4절).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와 얼굴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며, 기도 중에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심중에 승리의 확신을 새겨 주셨을 손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2. 왕의 기도에 온 백성이 함께합니다(5~13).

여호사밧의 기도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소환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옛적에 하나님 그리하셨으니,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에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 여호사밧의 삶을 가늠하게 됩니다(6~9절). 여기에는 그가 스스로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일생에 걸쳐 만났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여호사밧은 조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당시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의 침노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언급하며, 자신들을 향하여 도리어 칼을 겨누는 그들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립니다(10~11절). 이와 같은 여호사밧의 깊은 기도를 따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 곧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전쟁이 넘어갔다는 확신이 들었을 법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는 통로로서 기도를 가르치는 역대기하를 묵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2.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 줍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2:23~24, 27~28 ²³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²⁴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²⁷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²⁸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9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됴이나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Why do you bring charges against me? You have all rebelled against me,” declares the LORD.

- 30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In vain I punished your people; they did not respond to correction. Your sword has devoured your prophets like a ravening lion,

- 31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와 말을 들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You of this generation, consider the word of the LORD: Have I been a desert to Israel or a land of great darkness? Why do my people say, “We are free to roam; we will come to you no more?”

-
- 32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Does a maiden forget her jewelry, a bride her wedding ornaments? Yet my people have forgotten me, days without number,

- 33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How skilled you are at pursuing love! Even the worst of women can learn from your ways,

- 34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On your clothes men find the lifeblood of the innocent poor, though you did not catch them breaking in. Yet in spite of all this

- 35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you say, 'I am innocent; he is not angry with me.' But I will pass judgment on you because you say, 'I have not sinned.'

- 36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Why do you go about so much, changing your ways? You will be disappointed by Egypt as you were by Assyria,

- 37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You will also leave that place with your hands on your head, for the LORD has rejected those you trust; you will not be helped by th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킵니다(29~35).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본 단락은 책망받는 유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삼킨 행위가 언급됩니다(29~30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혹여 예레미야가 느꼈을 두려움과,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던 최악된 현실에 비통하게 울부짖었을 심정이 헤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너진 시대에 성경은 지난날 광야의 시간을 반추시킵니다(31절). 이스라엘은 한때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은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라고 노래하였지만 지금은 도리어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이리저리 우상을 찾아 돌아다닐 뿐입니다(35절). 그러나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잘못된 길을 다닐지라도 죄는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 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32절)

2.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36~37).

이스라엘이 의의 길을 떠난 대가로 얻는 것은 오직 절망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한 세력이 다름 아닌 앗수르와 애굽이었다고 밝힙니다(36절). 그러나 축복을 안겨다줄 줄 알고 의지한 열방으로부터 그들은 재앙을 얻게 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쌀 만큼 큰 수치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숨기고 애써 부인하면서도 열방의 왕에게서는 많은 사랑을 받고자 한껏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밈니다(33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그들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아이러 떨며 두려워하던 예레미야와 달리 백성은 파괴하고 멸망시킬 웅덩이를 사랑하며 열방의 세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말씀에 비추어 다가오는 새해에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에 믿는 자의 전인격과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의지하며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2:6~8 ⁶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⁷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⁸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오정동 선교사촌_서의필하우스 |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오정동 선교사촌의 3채의 선교사 주택 중 들어가면서 두번째 집인 ‘서의필하우스’이다. ‘서의필하우스’는 1954년에 내한하여 1994년까지 주로 한남대 교수로 사역했던 서머빌(한국 이름-서의필) 선교사가 살았다. 그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남대학교 대학 설립위원을 역임하였고, 1968년부터 1994년까지 26년간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봉직하였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및 통일 문제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선교 사역을 마친 후에도 부인 버지니아 벨 여사와 함께 한국 선교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일에 헌신해 왔으며, ‘Christian Friends of Korea’를 조직하여 북한 동포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했다. 서머빌 선교사는 올해 5월, 95세의 나이로 미국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믿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 유적> 중 -

- 서의필하우스 앞 서의필박사 흉상 안내판 참고 -

홍군의 말 서의필하우스를 딱 마주하자마자 이곳을 그린 그림은 12월호에 놓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집 안에 소박하게 자라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하기에 넘 이쁠 것 같은 나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공간공감을 그리며 최대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 왔는데, 이번만은 작가의 상상을 살짝 넣어서 그 이쁜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상상을 더해 그렸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즐겁고 따뜻한 성탄절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났듯, 성도님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31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2/31~1/6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 131:3)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길을 따르며

하나님,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
과거를 돌아보아도 굽이굽이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셨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실 줄 굳게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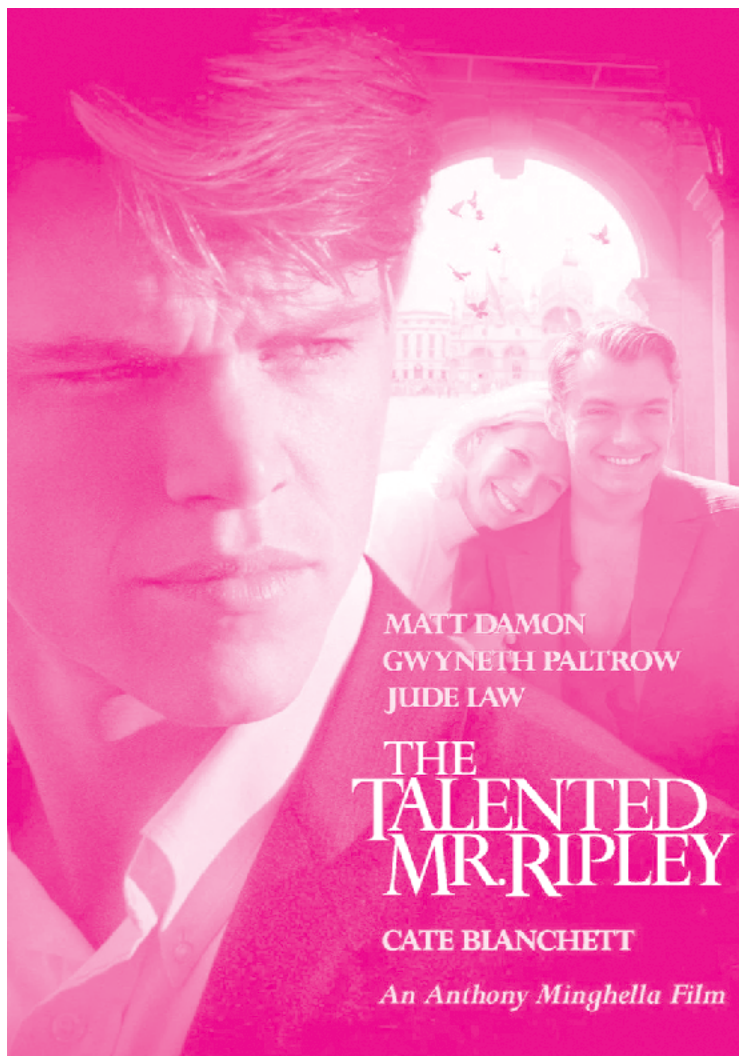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날은 새로움으로 다시 입는 날이오니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신을 벗고 나선 모세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11. 1(수) 새벽기도회 중에서

〈리플리〉를 통해 본 사기와 속임수의 결과

글 황영미 (집사)



남을 속이는 사기는 멸망이 기다린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 56)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시 101:7)

최근 크고 작은 사기 사건들에 대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가까이는 ‘보이스 피싱’이 우리의 핸드폰을 매일 침입하고 있으며, 사기 문자가 날로 진화하여 너무 그럴듯해서 경고를 미리 알지 못하면 당하기 쉽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 중 절도 범죄가 1위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가 1위라고 한다. OECD 37개국 중 사기 범죄율이 가장 높다고도 한다. 우리나라 치안은 안전하다고 알려졌는데, 사기 범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기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과욕이나 지나친 추구가 도덕심을 내던져 버리게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멸망시키라고 경고하신다. 남을 속이는 사기를 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 생각이나 할까? 잠깐 속여 돈을 사취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기저에는 상벌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

영화 <리플리>의 상황

‘사기’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알랭 들롱 주연의 ‘태양은 가득히’(1960)와 맷 데이먼 주연의 ‘리플리’(2000)다. 두 영화 모두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씨’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스토리 전개 과정이 다르다. 이 소설은 영화화된 두 편의 영화 모두 세계적으로도 흥행했다. 리플리라는 캐릭터가 그만큼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결과다.

‘태양은 가득히’는 원작과 달리 주인공 톰의 사기극이 결말에서 발각되는 인과응보로 결론지어 지지만, ‘리플리’는 그렇지 않다. 영화 ‘리플리’의 오프닝은 톰 리플리가 손목을 다쳐 피아노를 칠 수 없는 피아니스트 대신 그의 프린스턴 졸업생 재킷을 입고, 부자들의 화려한 파티에서 성악가의 반주를 하는 장면이다. 낮에는 호텔보이, 밤에는 피아노 조율사로 살아가며 호텔에서의 클래식 연주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던 톰이 남몰래 호텔의 피아노 앞에서 연습한 실력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다. 이후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면, 나 자신부터 지우고 싶다. 재킷을 빌린 것부터.”라는 톰의 내레이션으로 그가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입체적 캐릭터임을 보여 준다.

그는 이 연주로 선박 부호 허버트 그린리프의 눈에 띄게 된다. 그린리프 내외는 졸업 기수가 적힌 프린스턴 재킷을 보고 그를 아들 디키 그린리프(주드 로)의 친구로 생각하게 된다.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열결에 거짓말을 하게 된 톰은 그린리프의 조선소에 초대되면서 거짓말을 본격화한다. 이탈리아에서 여자친구 마지(기네스 팰트로)와 돈만 쓰고 노는 망나니 아들 디키를 집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면 천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그린리프에게 받은 톰은, 디키와 친해지기 위해 작전을 짜 그가 좋아하는 재즈를 연구한다. 톰은 그린리프가 보내 준 유럽행 고급 크루즈 티켓의 R석에 타게 되는데, 출입국 수속을 하면서 섬유재벌가의 딸인 메리디스 랜들(케이트 블란쳇)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선박 가문 그린리프의 아들 디키라고 말한다. 디키의 많은 것을 연구한 터라 디키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가 프린스턴에 같이 다녔다며 접근한다. 톰은 점차 디키와 마지 사이에 치밀하게 끼어들어 언변으로 신뢰를 얻게 된다. 디키가 뭘 잘 하느냐고 묻자 톰은 “서명 위조, 거짓말, 다른 사람 흉내 내기”라고 답해 디키가 당황하지만, 아버지 말투를 그럴듯하게 흉내 내는 톰의 재주에 디키는 웃어넘기게 된다. 게다가 재즈 클럽에서 재즈곡을 멋지게 불러 톰은 디키의 마음에 쏙 들게 된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디키는 톰에게 스키도 못타고 옷도 못 입는 가난뱅이라 놀리기 일쑤고, 심지어 ‘거머리’라고 무시하며 지겹다고 화를 낸다. 흥분하여 다투던 톰은 디키를 찾길에 죽이게 된다. 이후 그는 디키가 되어 그의 서명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살아간다. 그를 의심하는 디키의 친구 프레디까지 살해한 톰은 프레디의 죽음을 조사하는 로마 경찰에게는 자신이 디키라며 거짓말을 하고, 베니스로 도망쳐서 베니스 경찰에게는 자신이 톰 리플리라고 경찰의 취조에 응한다. 그를 향한 모든 의심은 톰이 위조한 디키의 유서로 온 좋게 마무리되고, 톰은 자신을 디키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가 하면, 톰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며 결말로 치닫는다.

톰 리플리는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사람을 살해하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비밀을 눈치 챈 사람들까지 살해하고, 재벌 2세로 행세하며 살아가는 반인격장에 캐릭터다. ‘리플리 증후군’의 어원이 된 소설 ‘리플리-재능 있는 리플리’는 사기가 여전히 팽배하다는 주제의 영화와 인과응보로 주제가 변형된 두 영화 사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영화에서 보여 주듯이 사기란 타질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그의 욕망을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그리스 신화 속 예언의 신 아폴론은 음악의 신이기도 하다. 도둑질하는 능력이 출중한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아폴론의 소들을 훔치면서 풀잎으로 신발을 신겨 훔친 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기지를 쓴다. 예언의 신 아폴



론은 헤르메스가 범인인 줄 알았지만, 헤르메스가 리라를 연주하고 있을 때 그 리라를 갖고 싶어 했다. 헤르메스는 흠친 소들을 다 주면 리라를 주겠다고 한다. 음악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폴론은 리라를 받고 소들을 전부 주게 된다.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신들도 그러하니 인간이야 오죽하랴. 좋아하는 것이 바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자

기독인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십계명의 마지막에도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할 경우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창세기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여 에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했고, 에서한테서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훔쳤다. 그야말로 형 사기 사기를 친 것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거짓말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일까. **'야곱'은 '에서'에게서 도망쳐 다녀야 했고, 어느 날 압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그때 과거 '야곱'은 죽고,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우리들 대부분도 실수하고, 과욕을 부릴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상벌에 분명한 신 주님께서 내리실 결과에 대해 기독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리플라> 공식 스틸 이미지

- 이 글은 『문화일보』 2023.11.10. "살며 생각하며"에 게재된 필자의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11001032911000003>)

봄



영어부 교사수련회



영어부 분반 활동



유아부 교사 모임



유아부 활동



유치1부 활동



유치1부 활동



영아2부 분반 활동



영아2부 종교개혁 주일



유아2부 예배



유아2부 활동



유치2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유치2부 소망아이 찬양 축제



유아유치3부 예배



유아유치3부 헌금 특송



유년2부 성경 퀴즈



유년2부 예배 위원



초등2부 어린이 주일



초등2부 찬양학교



소년2부 분반 성경공부



소년2부 예뻐학교



유년부 생일 축하



유년1부 예배



초등1부 찬양팀



초등1부 활동



소년1부 교사 야유회



소년1부 교사대학 수료



영어아동부 교사야유회



영어아동부 활동



중등1부 교사 불링 대회



중등1부 양화진 탐방



고등1부 블레스팅투어



고등1부 예담학교 수료식



드림부 서울숲 야외 예배



드림부 수능 파송 예배



청년부 국내 선교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



중등2부 찬양대 아웃팅



중등2부 창립 기념 주일



고등2부 교사 आयुह



고등2부 동아리활동



대학부 간식 투어



대학부 선교 후원 행사



청년플러스 PLTC 수료식



청년플러스 캠퍼스 단기 선교

빛과 소금

글 · 그림 이호연 (성도)

마태복음 5장

¹³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¹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¹⁵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58 X 46 cm
Oil on canvas
2015



현화이야기 23

12월, 우리의 고백



10월 22일 주일

글 이영주 (집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란 선물, 풍성한 계절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연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상쾌한 바람, 울긋불긋한 산과 들을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선물로 받은 것에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9일 종교 개혁 주일

글 안진현 (권사)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새찬송가 87장 中

종교 개혁 주일 50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기도를 찬송시로 올려 드리는 헌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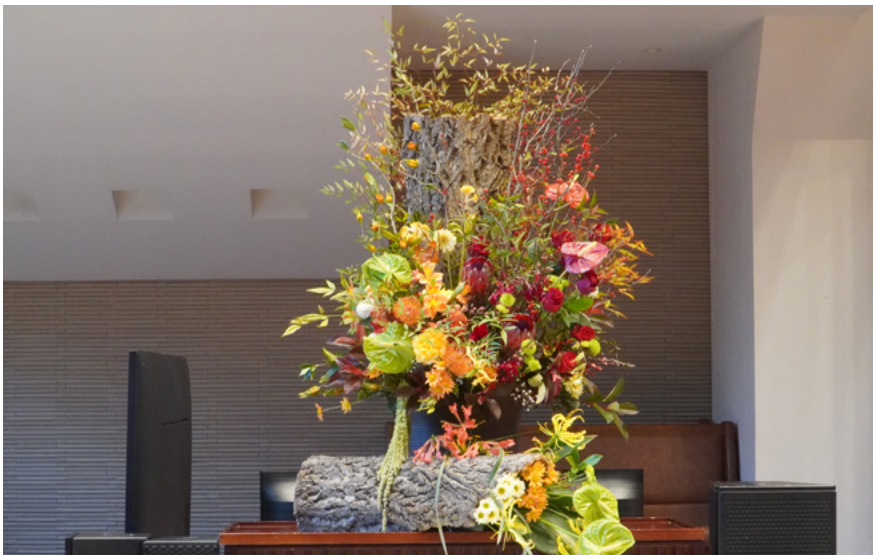


11월 12일 주일

글 최창실 (권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름다운 추수의 절기
부족한 손길로 예배를 돕는 헌화를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어 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믿음도 말씀대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다양한 가정별 가정예배, 모델은 다양하게 사건은 선명하게!

글 신형섭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성경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신앙가정 유형

성경은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되는 신앙가정 유형을 한 가지 모형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3세대 신앙가정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자신의 부모 세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1세대 신앙 가정도 있습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관계처럼 직계 부모나 직계 자녀는 아니지만 친족 관계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확대된 신앙가정도 있고, 디모테처럼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참된 믿음을 지켜 낸 한 부모 신앙가정도 있습니다. 혈연적 부모 자녀 관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디도와 같은 관계, 말하자면 지금의 교회 학교 교사와 학생과 같은 관계 안에서 보이는 영적 신앙가정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자신에게 믿음의 가정이 있고, 가정예배의 부르심 앞에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정별 가정예배에서의 핵심은 '가정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다양하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1. 부모만 모여 드리는 가정예배_ '따로 또 같이' 가정예배

군대, 유학, 직장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은, 자녀들과 '따로 또 같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또 같이'라 함은 비록 각자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동일한 시간을 정하여 같은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 시간을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라고 정했다면, 흩어져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루 전날 문자 혹은 전화를 통해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내일 저녁 9시에 가정예배 시간인 것 알지? 이번 주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니?" 이렇게 나누어진 기도 제목, 감사 제목으로 온 가족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토요일 저녁 9시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시간과 자리는 가정예배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예배_ '은혜 지경을 넓히는' 가정예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가정예배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믿음을 가진 가족이 '은혜 지경을 넓히는' 가정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는 가정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가정예배로 받아 주십니다.

예를 들면 믿음을 가진 아내가 함께 **저녁 식사**하는 남편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최근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은혜의 지경을 넓혀서 감사를 나눈다면 그 자리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남편은 아직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순 없더라도 믿음을 아내가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나눈다면, 분명 가정예배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 지경을 넓히는’ 가정예배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에는 마음을 닫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녀와 **맛있는 간식을 먹는 시간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엄마의 삶에 역사하신 생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날 자녀의 마음에 ‘나도 엄마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시간은 단순한 간식 시간을 넘어서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가정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1인 가구 가정예배 ‘영적 가족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혼자 사는 1인 가구 가정의 경우는 ‘영적가족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일상에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지켜가는 경우와, 혼자만으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따르곤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믿음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따로 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신앙 가정인 1인)에는 **교회가 소그룹으로 영적 가정을 묶어 주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역자나 영적 리더를 세워서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인 가정의 특징과 상황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가정예배 모델보다는 대화 모델, 기도 모델, 이 벤트 모델, 이슈 모델, 절기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고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¹⁾

1) 가정예배의 다양한 모델은 필자의 책에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모형별 가정예배 실천”을 참고할 수 있다. 신형섭, 『가정예배건 축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7), 부록.



4. 무자녀 부부가 드리는 가정예배_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는’ 가정예배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은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종교 개혁 시대는 물론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온 시대에서 중요하게 실천된 목양적 기준입니다. 예배는 교회공동체가 교회 되도록 하는 본질적인 사건이기에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가정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가정예배를 자녀 때문에 하는 부모의 영적 숙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정예배는 자녀를 주신 이후로 유예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운 지금부터 드려야 합니다.

본 자료는 필자가 『목회와신학』에 게재한 글인 “가정유형별 가정예배, 모델은 다양하게 사건은 분명하게”(2022년 3월)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면역 기능과 건강한 삶

글 배동한 (집사)





우리 인체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천적으로 자체적인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다. 주위 환경의 유해 물질(바이러스, 세균, 알레르기성 항원, 곰팡이, 환경 오염 물질, 미세, 초미세 먼지 등)과 자연환경의 물리적 변화(기후, 온도, 습도)에 대해 원래의 상태로 건강을 유지시키려는 기전을 면역 기능이라고 한다.

주위 환경이나 외부의 여러 유해한 자극이나 접촉에 대해 인체의 면역 기능이 감소하여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질병이나 암 등을 겪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기능 저하를 초래하면서 질병과 암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가 인체에 가해지면, 일단 뇌의 시상하부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C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뇌하수체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ACTH}과 베타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 피질을 자극하여 스트레스 유발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촉진하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초래되어 각종 질병이나 암이 유발될 수 있다. 베타엔



돌핀은 림프구의 T세포를 증식시키거나 활성화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그 외 통증 완화와 무통 작용도 하게 된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세포검사(Lymphocyte subsets)는 조직 내의 면역학적인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검사로, 백혈구의 특성 및 성상을 측정하는 데 임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면역 체계의 면역 세포를 크게 분류하면 B세포, T세포, 자연살해(NK)세포, 대식세포로 구분된다.

1. **B세포**는 항체라고 불리는 면역 글로불린을 생산하는 유일한 면역 세포이다. 면역 글로불린은 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나 세균들을 처치해 우리 몸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보호한다.

2. **T세포**는 가슴샘(흉선)에 존재하면서 세포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로서 독성T세포, 도움T세포, 억제T세포로 세 종류가 있다.

- 독성T세포는 세포 자체를 사멸시키는 세포이다.
- 도움T세포는 많은 독성T세포를 형성케 하여 면역 담당 세포인 사이토카인(cytokine)을 합성하여 B세포, 대식세포, 독성T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 억제T세포는 B세포의 면역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몸 상태나 체질에 따라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3.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로서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암 세포의 표면에 달라붙어 세포 내로 구멍을 뚫고 세포벽이 터져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공격하게 된 후, 바이러스나 암 세포를 사멸시킨다. T세포가 류마티즘 환자의 몸에



서 자신의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과는 달리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 공격하는 인체의 아주 유익한 세포이다.

4. **대식세포**는 외부 유해 물질을 직접 잡아먹는 탐식 작용을 하며, 항원들을 파괴하여 파괴된 항원의 조각을 복합체^{IMC} 단백질에 부착해 면역 인자로 불리는 싸이토카인^{cytokine}을 생성하여 면역 방어 기전에 관여한다.

각종 질병이나 여러 종류의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한다. 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충분한 휴식과 수면, 감염 예방을 위한 청결 유지가 필요하다.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음식(홍삼, 마늘, 생강, 아보카도, 파프리카, 녹차, 녹황색 야채, 등푸른 생선, 우유 및 살코기 등 단백질, 각종 버섯류, 아몬드 등 견과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울증 예방과 면역에 도움이 되는 여러 친교 활동, 특히 아름다운 동행 같은 단체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매일매일이 은혜로운 하루가 될 것이며 우리 몸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소함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각종 질병과 암을 극복하고,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건강한 몸도, 건강한 믿음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해 본다.**

Book 올해의 책

출판사 비아가 추천하는

올해의 책



상처 입은 앎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 다시 보기

로완 윌리엄스 지음, 민경찬·손승우 옮김 | 380면 | 20,000원

영미권을 대표하는 신학자/목회자인 로완 윌리엄스의 첫 번째 저작이자 대표작. 신약성서 저자들부터 오리게네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마르틴 루터, 십자가의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가진 사상의 핵심 동기(문해 의식)가 무엇이었고, 그들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핀다. 그리스도교는 나사렛의 한 인간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부활했다는 곤혹스러운 사건을 통해 탄생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를 따르던 이들은 저 인간과 관련된 사건들, 그를 둘러싼 일련의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하여 이 피조 세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고 믿었고, 그 믿을 아래 자신들이 가진 기존의 생각들을 바꾸어 나갔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모순 혹은 역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고집할 때마다 이를 깨고, 뒤흔들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은 그리스도교 사상의 끊임없는 상처였다.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이 상처를 붙들고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상처가 삶과 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했는지 표현하고자 분투했다. 다수의 신학자는 누군가 한 체계를 제시하면 그다음 세대에서 그 체계의 한계를 비판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그리곤 했으며, 결과적으로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사상의 진보를 그리는 형태가 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형태는 결과적으로 해당 사상들이 나온 역사적 배경, 그 속에서 이루어진 사상가의 신앙을 도외시하기 쉬웠다. 로완 윌리엄스는 매끈하고 단순한 도식을 거부함으로써 사상사, 교회사, 지성사가 아우러진 독특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젊은 '대가'의 탁월함이 돋보이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닌 이들이 신앙을 통해 이 세계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삶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표현하려 분투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지금, 여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신학의 영토들

서평으로 본 현대 신학

김진혁 지음 | 772면 | 35,000원

한국 신학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학자로 손꼽히는 김진혁 교수가 쓴 서평집 형태의 현대 신학사. 현대 신학을 대표하는 책들을 살펴며 현대 신학의 지형도를 그려낸다. 현대 신학은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이 현대 사회와 마주해 갖게 되는 다양한 질문들에 성서, 전통에 기대어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적이면서 실천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현대 신학 저술들도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막상 현대 신학 저술들을 읽을 때는 여러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현대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한 현대 신학, 현대 신학이 개척한 영토들이 한국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풍문으로만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신학의 영토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현대 신학사 저작이자 서평집이다. 저자는 현대 신학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신학의 가장 혹은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책들을 기초 삼아 현대 신학의 지형도를 그



린다. 그렇게 나온 지형도는 현대 신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쉘라이어마허부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스 부어스
 마까지 자유주의 신학, 변증법적 신학, 구성신학, 후기 자유주의 신학, 철학적 신학, 역사신학, 해방신학뿐만 아니라
 생태신학, 정치신학, 공공신학, 장애신학, 종교와 과학의 대화, 동물신학 등의 새로운 목소리까지 포괄하며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메노나이트, 감리교회, 침례교회, 복음주의,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등 다양한
 교회 전통을 아우른다. 게다가 서평의 형식을 빌려 한 책을 접할 때 고려해야 할 맥락, 주목해야 할 부분, 유심히 보
 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꼼꼼히 다룬다. 현대 신학이라는 영토의 역사와 그 지경을 종횡으로 탐구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현대 신학의 전체 풍경을 가늠해 봄과 동시에 필요한 서적을 직접 찾아서 읽고 고민하며 신학적 사유
 의 힘을 키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

로버타 본디 지음, 황윤하 옮김 | 276면 | 14,000원



에모리 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 중인 로버타 본디의 대표작으로 초기 교회, 특히 사막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소개한 저작. 영미권에 사막 수도 운
 동과 그 의미에 대해 알려진 현대관 고전으로 꼽힌다. 흔히 그리스도교 교회사
 에서 사막 수도 운동은 초기 교회의 독특한 현상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었
 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공인된 뒤 좋은 시민과 좋은 그
 리스도인의 구분이 사라지자 역사가들은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 떠난 이들
 을 주류 교회의 흐름과는 별도의 흐름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이들의 역사와
 사상은 그리스도교 영성사나 수도회의 역사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되 '초
 기 교회'라는 맥락과는 분리되어 받아들여졌다. 저자 본디는 이러한 경향에
 반대해 이들을 '초기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명명하고, 이들이 숙고하고 성찰
 한 바가 당시 제도 교회 및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들이 추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이를 세기기 위한 노력과 성찰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우리는 각자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동시에 '내가 돋보이기를 원한
 다. 사랑받고 또 나누기를 원하면서도, 상처입기를 두려워한다. 우리 자신이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주저한다. 실제 사막에 살았던 그리스도
 인들도 이를 고민했고, 분투하며 복음에 비추어 어떻게 자신을 새롭게 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이야
 기대로 몸소 살아왔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사려 깊은 학자가 오랜 텍스트와 '지금, 여기를' 연결하는 법, 개인, 공
 동체, 사회를 바라보는 깊은 시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전통에 머금고 있는 풍요로운 통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로마 세계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교

로버트 루이스 윌켄 지음, 양세규 옮김 | 384면 | 24,000원

버지니아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현대를 대표하는 그리스도교 역사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로버트 루이스 윌켄의
 대표작으로 로마와 초기 그리스도교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현대관 고전으로 꼽힌다. 비단 그리스
 도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아래서 발생해 성장했고 필박받았으

며 공인되었다가 이내 국교가 되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인이라면 그런 가운데 순교가 일어났고 호교론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을 옹호했으며,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했고 서서히 교리와 전례를 포함한 전통이 형성되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달리 말하면, 당시 그리스도교가 로마를 어떤 식으로 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는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보았는가? 로마 제국에 살던, 고대 다신교를 믿던 이들은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보았는가? 윌켄은 이러한 물음을 품고 당시 로마 세계를 대표하는 이들(플리니우스, 갈레노스, 켈소스, 포르퀴리오스, 올리아누스)을 '통치자', '과학자', '지식인', '철학자', '개종자'라는 범주로 분류해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로마 세계에서 바라본 그리스도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살핀다.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그리스도교가 등장함으로써 인류에게 남긴 새로움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드러낸다. 이로써 독자들은 오늘날 그리스도교를 향해 던지는 많은 물음과 비판은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제기되었으며, 언제나 그리스도교는 이 물음과 비판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갈고, 닦고, 더 깊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아가 여러 의혹과 비판 가운데서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불굴고자 한 신앙의 핵심은 현대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교의 생명력이 어떻게 꽃피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예수의 마지막 말들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플레밍 러틀리지 지음, 손승우 옮김 | 168면 | 12,000원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탕에는 한 사람의 탄생과 성장, 죽음, 죽음에 대한 승리가 놓여 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교는 죽음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분의 죽음을 진지하게 되새겨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 시순철이 그 과정이며, 십자가 사건을 기리는 성금요일은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절정의 시간, 그리스도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며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남기신 마지막 말들을 묵상하곤 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는 아버지께 타인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돌이킨 자에게 낙원을 약속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빚어내고, 아버지의 부재에 울부짖고, 목말라하고,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자신의 영을 아버지에게 맡긴다. 아버지를 향한 간구에서 시작해 울부짖다 아버지를 향한 간구로 다시 마무리되는 일련의 과정은 (지상의 모든 폭력에 노출되어 침묵에 들어가기 전) '말 씬이 세계에 온 이유, 세계의 정체, 그리고 세계가 새롭게 맞이할 미래를 압축해서 보여 준다. 플레밍 러틀리지는 저 말들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열어젖힌다. 우리의 폭력성, 뒤뜰만 마음, 오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폭로되는지 동시에 우리의 평화, 돌이킨 마음,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사려 깊은 주석과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운 신학적 통찰, 현실과의 연결을 통해 보여 준다. 인류가 서로에게 갖는 모든 적대감과 비난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 우리들 사이에서 쫓겨났음에도 우리에게 손길을 내민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용서와 화해의 차원을 열어젖힌 사람, 우리를 분열시키는 모든 경계와 적대감을 끌어안고 새로운 가족을 빚어낸 사람이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그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은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



11월 첫째 주

국내선교부 ‘함께 예배하러 가요’

제직회 국내선교부는 오랜 시간 지역 곳곳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립대상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두손 모아 소망나눔’ 후속 행사에 이어 자립대상 교회를 연결하고, 동역자를 세우기 위한 ‘함께 예배하러 가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강원, 호남 등 전국 각지에서 사역지를 외로이 지키고 있는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기관들을 방문하고 기도와 재정 지원 등으로 힘을 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국내선교부 부원들은 선교관 앞과 본당 옆 주차장, 사무동 앞에서 ‘사역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행사에 동참하려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 카드’ 안내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과 지역 특산물을 나눠 주고 따뜻한 차와 부추전, 간식을 대접했다. 성도들은 국내선교부가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역 내용을 살펴보고, 예배 지원 사역과 기도에 마음을 같이 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내선교부는 예배 지원 사역을 신청한 성도들과 함께 일 년에 1~2회 또는 분기별로 4회까지 지역교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소망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 헌신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 어우러져 곳곳의 지역교회와 기관이 위로를 얻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 안에서 하나되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11월 첫째주

Bridge 3040지구 '새가족초청 찬양집회'



젊은 부부 공동체 Bridge 3040지구가 지난 10월 21일 오후 4시, 새가족을 초청해 찬양 집회를 가졌다. 예배실 앞 로비에는 처음 방문한 새가족들과 새가족을 환영하는 3040지구 회원들로 가득했다. 회원들은 축복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 책갈피와 향기롭고 예쁜 화분을 새가족들에게 선물했다. 3040지구 담당 정제헌 목사가 회원과 새가족들을 환영했고, 분당 만나교회에서 사역 중인 우미셀 목사가 강단에 올라 '세상을 사는 지혜' 찬양을 부르며 말씀과 간증을 시작했다. 우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소외되고 배척받던 사마리아 수가성, 그곳에서도 자신을 감추며 살았던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어둠 속에 살던 여인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 삶이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증 뒤에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열심'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약함을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높였다. 참석자들은 우미셀 목사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각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겼다. Bridge 3040지구 예배는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다. 우리의 치부까지 따뜻하게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고 전하는 3040지구 가정이 되길 소망한다.



2023 | 12

발 행 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 환

유지미

김영규

홍성민

이순기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워크워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3년 11월 25일(통권 144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tpd@naver.com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1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3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023 교회학교성탄발표회

크리스마스 선물

Christmas Gift



12.20 | 수 |
오후 7시

소망교회
본당

